

제6장 조선시대

1. 지방 행정 조직

1) 지방 행정 조직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시대까지 특수 행정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군현 아래에는 면·리·통을 두었다.

한편 수령의 비행을 견제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감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유향소(향청)를 운영하여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좌수와 별감을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면서 백성을 교화하였다.

이러한 지방 행정 조직에 있어서 보령 지역은 전국 8도 중 충청도에 속했다. 충청도는 고려말 1356년(공민왕 5) 양광도를 개칭한 데서부터 시작된 용어였다. 세종 때까지는 보령현은 충청도 홍주목 소속이었고, 남포현은 공주목 소속이었다. 이어서 세조 초에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실시되면서 충청도는 5개 진관(鎭管) 즉 공주, 충주, 홍주, 천안, 청주를 두었고, 보령지역은 이중 홍주 진관에 속하게 되었다. 홍주 진관에 속한 고을은 서천군 서산군 태안군 면천군 온양군과 홍산, 덕산, 청양, 대흥, 비인, 결성, 남포, 보령, 아산, 신창, 예산, 해미, 당진, 평택현 등이었다.

이전까지 보령지역의 남포현은 통일신라시대는 서림군 영현, 고려시대는 가림군 영현, 조선초에는 공주목 소속이었고, 보령현은 통일신라시대는 결성군 영현 고려시대 및 조선초는 홍주의 영현이어서 그 소속이 다른 군현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데, 이때 와서

비로소 모두 홍주진관에 속하면서 소속이 동일해지면서 보령현과 남포현은 지역적 동질성이 강화되게 되었다. 조선시대 보령현과 남포현이 홍주진관에 속했다 하여 행정상 홍주목의 감독을 받은 것은 아니고, 군사 방어 체제상 지휘계통에 포함된 것이다. 행정의 상급 감독 기관은 관찰사(감사)였다.

남포현과 보령현에는 지방관(수령)으로서 종6품의 현감(縣監)이 파견되었으며, 남포현감과 보령현감의 주 임무는 다른 곳의 수령과 마찬가지로 수령7사(守令七事)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는데, 수령칠사란 농상을 성하게 함(農桑盛), 호구를 늘림(戶口增), 학교를 일으킴(學校興), 군정을 닦음(軍政修),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賦役均), 소송을 간명하게 함(詞訟簡),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奸猾息)이다. 이 수령칠사는 지방관에 대한 인사 고과의 기준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수령(지방관)을 목민관(牧民官)이라고 했다. 목민관이란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기른다는 의미이다. 지방관은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그의 정치의 선악은 왕의 치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왕은 임지로 부임하는 지방관을 만나 임무를 확인하고 왕을 대신하여 선정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렇게 왕이 지방관을 친히 만나는 것을 지방관의 입장에서는 하직(下直)을 한다고 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면 하직을 하는 자리에서 왕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대체로 정해져 있었다. 첫 번째는 그의 출신 및 이전에 어떤 관직을 거쳤는가? 두 번째는 지방관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부임하게 될 지역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였다.

여기서 지방관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바로 수령칠사였고, 지방관으로 임명되면 왕과 의정부에 나아가 하직인사를 하면서 외위야 하는 것이었다. 현감의 임기는 5년이었으나 5년을 다 채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남포현과 보령현은 과거 왜구의 피해가 컸던 고을이고,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감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병조와 협의 하에 임명하도록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남포현감이나 보령현감의 대부분은 무관직이 임명되었던 것이다.

태종 16년(1416)에는 음(音)이 같은 고을의 이름을 고치는 조치가 행해지는데, 오늘날 충북 보은도 당시 보령(報令)이어서 우리 지역의 보령(保寧)과 음이 같았다. 그리하여 충북의 보령(報令)을 보은(報恩)으로 고쳐서 우리 지역의 보령이 고려시대 이래로 지금 까지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로 본 조선 초기 남포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남포현 : 본래 백제의 사포현(寺浦縣)인데, 신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서림군(西林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현종(顯宗) 9년에 가림현(嘉林縣) 임내에 옮겨 붙였다가, 다시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1380년 왜구로 인하여 인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공양왕 2년(1390)에 비로소 진성(鎭城)을 설치하고, 유리(流離)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안집(安集)시켰다. 조선 태조 6년(1397) 비로소 진병마사(鎭兵馬使)를 두고 관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진산(鎭山)은 구룡산(九龍山)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홍산에 이르기 34리, 서쪽으로 죽도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비인에 이르기 27리, 북쪽으로 보령에 이르기 6리이다. 호수가 180호요, 인구가 949명이다. 토성(土姓)이 셋이니, 임(任)·백(白)·이(李)요, 차성(次姓)이 셋이니, 유(庾)·현(玄)·문(門)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간전(墾田)이 2,668결인데 논이 6분의 3에 좀 모자란다. 토의(土宜)는 기장·벼·콩·조·메밀·보리·삼·모시·가는데·왕대이다. 토공(土貢)은 자리·참가사리[細毛]·지초(芝草)·황각(黃角)·족제비털·갓·감·붉은큰새우[紅大蝦]요, 약재(藥材)는 병풍나물뿌리[防風]·녹용(鹿茸)·연밥·목향(木香)이요, 토산(土產)은 은어[銀口魚]·신감초(辛甘草)·대합조개[生蛤]·낙지이다. 어량(魚梁)이 셋인데 주로 청어·상어·숭어·홍어가 난다. 염분(鹽盆)이 18이고 염정(鹽井)이 3개이다. 자기소(磁器所)가 한 곳인데 현의 동쪽 취련(吹鍊) 모로리(毛老里)에 있는데, 중품(中品)이다. 도기소(陶器所)가 한 곳인데 현의 동쪽 탄부포(炭釜浦)에 있으며, 하품이다.

세종실록지리로 본 보령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보령현은 본래 백제의 신촌현(新村縣)인데, 신라에서 신읍현(新邑縣)으로 고쳐 결성군(潔城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현종 9년에 운주(運州) 임내에 붙였다가, 예종 원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홍주에 이르기 24리, 서쪽으로 대해(大海)에 이르기 13리, 남쪽으로 남포에 이르기 21리, 북쪽으로 결성에 이르기 22리이다. 호수가 365호요, 인구가 1,213명이다. 토성(土姓)이 1이니, 최(崔)이고, 망성(亡姓)이 3이니, 장(張)·임(任)·이(李)이고, 촌성(村姓)이 4이니, 문(文)·진(陳)·유(兪)·나(那)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간전(墾田)이 3,127결인데 논이 9분의 4이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조·팥·메밀·밤·목화이다. 토공은 지초·종이·자리·갓·족제비털·여우가죽·삼괘이가죽·잘[山獺皮]·수달피(水獺皮)·참가사리[細毛]·어교(魚膠)·숭어·상어·홍어·조피나무열매·감이요, 약재(藥材)는 인삼·겨우살이풀[麥門冬]·단너삼뿌리[黃蓍]·백출(白朮)·속서근풀[黃芩]이다. 어량(魚梁)이 5인데 주로 청어·가물치·숭어·상어·홍어가 난다. 염소(鹽所)가 3인데 그 곳의 가마가 18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인데 현의 서쪽 청연리(靑淵里)에 있고, 하품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인데 현의 서쪽 장척동(長尺洞)에 있고, 하품이다.

2) 보령현 치소의 이동과 보령읍성

보령의 북부지역은 백제시대에 신촌현, 통일신라시대에 신읍현, 고려·조선시대에 보령현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들 현 치소(治所)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였을까 하는 점이다.

보령현 치소의 위치는 두 차례 옮겨졌다. 백제시대부터 조선 정종 2년(1400)까지는 주포면 보령리의 구성재로 불리는 곳에 있었고, 이어서 세종 14년(1432)까지는 주포면 봉당리의 봉당성(고남성), 그리고 1432(세종14)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현재의 주포면 보령리 현재의 읍성이 있는 곳이었다.

백제시대부터 조선 정종(1400)때까지 치소가 있었던 구성재는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진당산의 서남쪽 가지인 배재산에서 흘러내리는 구릉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낮은 구릉이며, 북쪽으로는 하천에 의해 침식되어 절벽을 이루고 중앙부는 편평하며, 남쪽으로는 완경사를 이룬다. 해발고도는 약 50m로 가장 높은 곳이 57m에 불과하다. 현재의 토지 이용은 북쪽의 급사면이 소나무 대나무 숲을 이루며, 나머지 지역은 밭으로 이용된다. 서쪽으로는 국도 21호선이 지난다.

이곳에 치소가 들어서기 유리한 점은 지대는 낮지만 북쪽부분이 하천에 의해서 침식되어 높이 15m 정도의 급사면이 있다는 점과 낮은 구릉 위의 평지라는 점, 또한 넓은 개활지 상의 구릉이라 사방을 관망하기 좋은 점, 진당산성·봉당성(고남성)·아현산성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유사시 피난하기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불리한 점은 동·남·서로 평활한 평지가 이어져 방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치소가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1430) 9월 24일조에

도순찰사 최윤덕이 아뢰기를, “충청도 비인·보령의 두 현은 해구(海寇)들이 가장 먼저 발길을 들여놓는 지대인데, 비인의 읍성은 평지에 위치하여 있고, 보령의 읍성은 높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 성터로 맞지 않습니다. 또 잡석을 흙과 섞어서 축조한지라 보잘것없고 험박한 데다가 또한 우물과 샘마저 없으니, 실로 장기간 보전할 땅이 아닙니다. 비인현 죽사동(竹寺洞)의 새 터와 보령현 고읍(古邑) 지내리(池內里)의 새 터는 삼면이 험준한 산을 의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내면도 넓고 샘물도 또한 풍족하여 읍성을 설치하기에 마땅할 뿐 아니라, 본현과의 거리도 불과 1리밖에 되지 않아서 진실로 옮겨 가고오는 폐단도 없사오니(하략) 10월부터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그 축조를 감독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의하면 현재의 보령읍성 근처가 세종 12년 당시는 고읍 지내리로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고읍이라 함은 과거에 읍의 치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므로 현재의 보령읍성 근처에 세종 이전에 치소가 있었음과, 세종 12년(1430) 당시의 보령읍성(봉당성=고남성)이 높은 구릉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현과의 거리도 불과 1리밖에 되지 않아서 옮겨 가고오는 폐단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터(현재의 보령읍성)가 당시의 읍성과 아주 가까웠음을 나타내었는데, 당시 읍성인 봉당성(고남성)과 새로운 터(현재의 보령읍성)의 직선 거리는 약 1.6km로 과거의 리(里)로는 4리로 되어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의 읍성인 봉당성(고남성)은 불과 30여 년 동안 임시로 거쳐하던 곳이었기에 백제시대 이래 조선초까지 읍성이었던 구성재를 기준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재에서 새로운 성터(현재의 보령읍성)까지의 실제 거리는 약 500m로 “불과 1리”라는 말과 부합된다.

또한 동국여지승람 보령현조의 정대鄭帶의 동헌기(東軒記)에, “보령이 경인년(庚寅年)부터 바다 도적의 해를 입어 우리 태조 경진년(庚辰年)에 봉당(鳳堂)에 성을 쌓고는 이를 방어하는 곳으로 삼았다”하였는데, 태조 경진은 정종 경진(1400)의 오기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대동지지에서 “봉당 古城은 서쪽 2리에 있는데, 본조 정종 2년(1400)에 축성하였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재에는 봉당에 성을 쌓는 정종 2년(1400)까지 보령현의 치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성재 田 560, 561, 562 일대에는 과거에도 기왓장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신촌(新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백제시대 기와편이 발견되어 백제시대의 신촌현 치소였음을 알 수 있고, 67×40×20cm의 돌에 직경 13.5cm 깊이 11cm의 구멍을 뚫은 문초석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구성재 치소시대에 이어서 정대의 동헌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정종 2년(1400)에 봉당에 성을 쌓고 치소로 삼았다. 봉당성은 현 주포면 봉당리 산62번지 속칭 고내미 마을 뒤에 있는 고성으로, 최고봉이 104.1m이며, 이 일대의 넓은 들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이다. 높이는 그리 높지 않으나 평지에 돌출해 있어 경사가 급해 외적이 접근하기 어렵고 넓은 개활지를 내려다볼 수 있어 방어와 감시에 유리하다. 단점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높은 구릉이라 왕래가 어렵고 물을 구하기 어려우며 성의 내부가 좁았던 데 있다. 이것이 읍치소가 이동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봉당성의 상황에 대하여는 세종실록지리지 보령현조에 “석성(石城)은 둘레 2,109척이고, 읍 석성(邑石城)은 둘레 173보인데 우물이나 샘이 없다.”라고 하여 봉당성을 읍석성으로 기록하고, 공사 중에 있는 새로운 읍성 즉 현재의 보령읍성은 석성으로만 표시하여 아직 읍치소가 이동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봉당성에서 1430년(세종 12)에 새로운 터를 잡아 옮긴 치소가 현재의 보령읍성이 있는 주포초·보령중학교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해발 351m의 진당산 자락으로 해발 50~70m의 높이이며, M자형으로 골짜기를 끼고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우며 낮은 구릉을 이용하여 축성하기도 유리하였고, 축성했을 경우 성안이 넓고 평평한 장점이 있다. 특히 이곳은 성 축조 이전에 지내동(池內洞)이라는 지명이 시사하듯이 물을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었다.

이 보령읍성의 축성은 세종 초부터 시작하여 서기 1430년에는 축성이 완성되고 1432년에 객관을 비롯한 중요한 관아가 완성되었다. 이 사실은 동국여지승람 보령현조의 정대(鄭帶)가 지은 동헌기(東軒記)에 기록되어 있다.



保寧縣 治所의 移動

보령은 고려 말부터 왜구의 걱정이 있었는데, 태조 때 봉당에 성을 쌓고는 적을 막아내는 곳으로 삼았다. 그러나 城池가 얇고 좁아서 험한 요새도 아니고 샘의 이로움도 없었다. 세종12년(1430) 가을에 순찰사 최윤덕은 감사 박안신, 병마절도사 이흥발과 더불어 다시 성 동쪽 1리 지점인 지내동(池內洞) 당산(唐山) 남쪽을 살펴보고는, 서산 군사(瑞山郡事) 박눌생과 현수(縣守) 박효함(朴孝誠)으로 하여금 공역을 헤아려 기한을 명하였던 바, 수 개월이 못되어 완성하게 되었다. 다음해 1431년 현감이 된 정대가 1432년 비로소 객관과 동서廩(東西廩)·제민당(濟民堂)·공아(公衙)·현사(縣司)·어풍정(馭風亭)·병기고(兵器庫)·영어(囹圄 : 옥(獄)) 등을 지어 이루니, 모두 140여 칸을 지었다.

1430년에 시작된 읍성 축조는 3년 사이에 새로운 건물까지 완성하여 봉당성 시절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 증가하는 토지와 인구를 통치하고, 왜구 방어를 위하여 연해안 지방에는 새로운 터에 읍성을 축조하는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봉당성(고남성)의 좁은 성내 면적으로는 한꺼번에 주민들을 입보(立保)시킬 수도 없고, 또 거기에는 물이 부족하였기에 이처럼 불합리한 구읍성(봉당성=고남성) 대신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지목된 지내동 지역에 읍성 신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치소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3) 남포현 치소의 이동과 남포읍성

보령지역의 남부지역에는 백제 때는 사포현,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는 남포현이 설치되었는데, 그 치소는 현재 남포읍성이 있는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에 있었다고 막연하게 알려져 왔다. 그러나 현재 남포읍성이 있는 남포면 읍내리의 치소는 조선 세종 때 옮겨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에 있었다. 오늘날 웅천지역의 고로(古老)들이 웅천을 ‘남포’ 또는 ‘원남포’로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 고적조(古跡條)에 “古藍浦가 있는데 지금의 관아 남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古縣의 터가 있다”고 하여 고남포에 관하여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남포가 다른 지역에서 이동된 치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편찬된 모든 地理志나 邑誌에서는 남포현의 연혁을 기록하면서 고적조에 같은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남포읍성이 있는 남포현 치소에서 남쪽 15리 지점은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이다.

수안마을의 지명 중 “불근댕이”라고 불리는 곳은, 과거 군현 관청에서 사직신(社稷神)을 모시는 부군당(府君堂)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東軒자리’, ‘옥담안밭’ 등의 지명도 관청 시설이 있었던 자리라고 볼 수 있으며, 원래 이 마을의 고유 이름은 소안(所安 즉 치소안)이었는데, 옛날부터 식자(識者)들이 비슷한 한자음을 따서 수안(洙岸)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수안 앞마을인 성동리에서는 지금도 수안을 고읍내(고읍내)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

또한 수안마을에는 수많은 다양한 문양의 와편(瓦片)들이 집터, 담장, 밭 등에 상당히 널려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사격자문, 고려시대의 어골문이 대부분이다. 지방의 변두리 지역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와편이 수습되는 것은 일반적 백성의 거주구역에서는 불가능하고 관청 소재지이기엔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특히 “官”자가 찍힌 와편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관청용 기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곳에 과거에 관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헐린 집터에서 문초석들도 발견되었는데, 이 문초석들은 뒤집어서 집의 주춧돌로 사용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56cm×46cm×36cm의 자연석에 직경 18cm 깊이 24cm 정도의 구멍이 뚫렸는데 내부는 오랫동안 문의 나무와 마찰로 인하여 매끈매끈하게 마모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편마암으로 된 문초석은 50cm×40cm×45cm의 자연석에 직경 20cm 깊이 26cm 정도의 구멍이 뚫렸는데 내부가 고르게 마모되어 있었다.

수안 마을 지역은 남포현 지역의 지리적 중심지에 속하며 차령산맥에서 뻗어나온 줄기가 서남쪽으로 가면서 산세가 낮아지면서 서해에 닿고 있다. 서북부는 잔미산이 이 지역을

옹위하고 있으며, 남부는 동막산·운봉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이고, 그 중심부는 보령지역 최대인 웅천천이 곡류하면서 비옥한 퇴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하구는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농경지로 바뀌었지만 서해바다와 연결된 천혜의 포구를 형성하였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수운교통의 편리, 방어기능의 최적조건, 농경생활의 편리 등으로 과거부터 인류생활의 중심지가 되어 왔음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 사포(寺浦), 남포(藍浦)라는 지명도 단순한 포구에 불과했다기보다는 백제말기 오합사(烏合寺)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백제왕실의 원찰(願刹)이 되었고, 신라 선문9산의 하나로 호서지역 불교문화를 크게 진작시킨 성주사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던 인상깊은 장소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주변에 백제시대에 축조되어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들이 있다. 잔미산의 수부리산성, 대천리산성, 운봉산의 운봉산성(성동리산성), 창암리산성 등이 있어 실제로 고대로부터 洙岸지역의 완벽한 방어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수안이 언제까지 남포의 치소였는가 하는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남포현조에는, “邑石城은 둘레가 317보이며, 안에 우물이 세 개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여, ‘고남포(古藍浦)’ 또는 ‘고읍성(古邑城)’이라는 기록이 없다. 세종 때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터를 잡아 읍성을 축성하였기 때문에 신축한 지역은 읍성과 고읍성이 동시에 나온다. 남포현도 만약 이전에 현 치소를 이전하였다면 고읍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비인의 경우에는 세종실록지리지 이전 세종 연간에 읍성을 새로 축조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고읍성과 이동 후의 읍성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보령현의 경우에는 새 읍성은 신축이 되었지만 완성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읍치소가 아직 이동을 하지 못해서 장차 고읍성이 될 곳을 읍석성(邑石城)으로 표기하고, 신축 읍성은 석성(石城)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남포의 경우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다음에 나온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포의 ‘古邑’ ‘古藍浦’ 기록이 최초로 나온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기록된 317步의 읍석성은 고남포의 읍성인 것이다. 따라서 세종 초기까지 수안에 남포현 치소가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에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우리 나라 해안이 황폐화될 때 남포에도 1380년에 왜구가 쳐들어왔고 백성들이 사망으로 흩어졌으며 이어서 진성(鎭城)을 쌓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현재의 남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고남포 지역이 과거부터 백성이 많이 거주하는, 이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때 웅천 주변 고남포 지역의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그리하여 317보의 진성을 쌓고 군정관인 병마사 겸 판현사(兵馬事兼判縣事)를 파견하여 주변의 산성들과 유기적 연락을 가지면서 군사 요새화하여 진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 후 현재 웅천 하구의 웅천읍 황교리 광암마을에 충청수영 휘하의 마량진(馬梁鎭)이 설치되고 침절제사(僉節制使)가 파견되어 이 지역의 관방이 구축되는 것은 고려 말의 고남포지역 왜구침입 피해 사실과 이 지역 방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은 고남포에서 현재의 남포로 언제 치소가 이동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을 당하여 조정에서는 연해안 지역의 방비를 위하여 새로운 읍성을 급히 쌓아가기 시작하였는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최윤덕을 순찰사로 삼아, 후에는 정흠지(鄭欽之)로, 또 조말생(趙末生)으로 대체시켜 가면서 충청·전라·경상도 연해 읍성을 순행하여 성 쌓을 터를 살펴서 정하고, 축성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 이후부터 인구증가와 주민 입보(入保)에 따른 편의와 방어를 감안하여 연해안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규모로 격식을 갖춘 읍성축조가 이루어진다.

남포읍성의 축조 논의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 27년(1445)이다. 세종 27년 8월 19일(庚申)조에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해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충청도 남포의 성을 쌓을 것을 흉년으로 정지하였으나 금년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쌓기를 청합니다. 또 전라·경상도의 요해처에 석보(石堡)를 각각 쌓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한 세종 27년 9월 3일(癸酉)조에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금년은 화곡이 처음에는 무성하다가 나중에는 잘 되지 않았으니 청컨대 남포와 전라·경상도의 석보 쌓는 것을 정지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임금이 “성을 쌓는 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해가 만일 풍등[豐登]하지 못하였다면 이 역사를 정지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세종 27년 10월 2일(壬寅)조에

사간원에서 “연사가 흉년이니 남포 등지의 성 쌓는 일을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하삼도의 기근이 예전보다 배나 되오니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하고자 함인데 금년에 정지하고 명년에 또 이와 같으면 성을 쌓을 만한 때가 없을 것이다. 무릇 비변사에서 힘이 미치면 행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다시 사간원에서 “성 쌓는 것은 백성을 위함이라 하지만 흉년인데 어찌합니까?” 하였다. 다시 임금이 “한가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지 않고 있다가 뜻밖에 변(變)이 생긴다면 미칠 수 있겠는가.

대신이 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정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쌓기를 권하는 사람도 어찌 흉년인지를 살피지 못하고 억지로 쌓자는 것이겠는가. 참으로 부득이한 것이다.” 하였다.

세종 28년 4월 30일(丁卯)條에

왕이 의정부에 글을 내려서 “지난 가을에 충청도의 성을 쌓는 일을 과하자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내가 따르지는 않았으나 마음이 또한 편치 못하였다.”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남포읍성의 축조는 세종 26년(1444)에 시작되었으나 세종 27년(1445)년에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재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왕명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것이다.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 축성이 추진되었기에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세종은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남포읍성의 정확한 완성 시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 보통 조선 초기에 읍성의 완성 기간이 농번기를 피하여 2~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세종 28(1446)년 봄까지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완성된 남포읍성의 상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문종 1년(1451) 9월 5일(庚子)조에 나온다.

藍浦縣邑城은 주위가 2476척, 높이가 12척, 女牆의 높이는 3척이며, 敵臺가 5개소, 門이 3개소, 擁城이 있고, 女牆이 337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2개소인데 성밖 2리쯤에 있는 防川으로부터 성을 뚫고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저수(貯水)해 왔고 垓字는 아직 과지 않았습디다.

이후의 모든 지리지 및 읍지의 남포읍성 상황은 세종 때 格式에 맞게 축성되었기 때문에 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남포면 읍내리의 남포읍성이다. 따라서 읍성과 진성을 겸한 남포읍성이 조선 초기에는 고남포 즉 수안에 있었고, 그것이 현 남포로 새로 축조되어 이동된 것은 1446년(세종 28년)~1451년(문종 1년)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 완성된 읍성과 함께 관아의 건물도 새롭게 지어졌다.

남포의 고읍지역은 방어에 유리하고, 해상과 연결되는 수운교통, 기름진 평야 등의 자연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평지성으로 된 읍석성이었기 때문에 지리적 방어력의 이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큰 하천가의 낮은 평야지대이고 웅천천이 감소 하천이어서 홍수 때 자주 피해를 겪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남포현 치소가 이동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조선 초기 인구증가로 인한 읍지역 인구밀집과

관청시설 증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수해지역은 주민생활과 통치의 결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옥마산 줄기를 배경으로 하고 펼쳐진 너른 들판의 한가운데 평지에 읍성을 쌓아서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바다가 바로 가까우면서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바다 감시의 방어기능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곳인 現 남포로 이동된 것이다.

고남포는 백제·신라·고려를 거치면서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배경 삼아 방어와 생활 중심지, 교통의 편리성을 가지면서 훌륭한 치소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진성(鎭城)이 설치되면서 군사 요충지가 되었다. 조선 태조 6년(1397)에는 순성진(蓀城鎭: 현 태안), 이산진(伊山鎭: 현 덕산)과 함께 남포진(藍浦鎭)이 설치되어 충청도의 3진으로서, 충청도 육군의 중요 3대 방어기지가 되었고 군정관인 첨절제사(僉節制使)가 파견되었다.

이어서 태종 13년(1413) 전국의 감무제도를 혁파하고 현감을 파견할 때도 남포는 계속 군정관인 절제사가 파견된다.

세종 29년(1447)에는 방어의 중요도에 따라 고을을 상진(上緊), 중진(中緊), 하진(下緊)으로 구분하여 무관 임명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이때 충청도는 태안과 남포를 주진(主鎭)으로 하고, 비인을 상진으로, 서천을 중진으로, 서산·결성·보령·해미·당진 등을 하진으로 하였으며, 남포는 연변의 중요한 고을이라 하여 무과나 무재록(武才錄)에 올라 있는 실력 있는 무관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현 남포로 이동된 후인 세조 1년(1455)에는 연해 요해지의 방어뿐만 아니라 인근 내륙 고을의 방어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인근 고을을 익(翼)에 분속시켰는데, 남포진을 거진으로 하여 중익을 남포·비인·홍산으로 하고, 좌익은 한산·서천·임천으로 하며, 우익은 보령·결성으로 하였다.

세조 3년(1457)에는 군익체제(軍翼體制)를 폐지하고 지역단위 방어체제인 鎭管체제로 개편되었다. 충청 서남부 지역은 홍주에 거진이 설치되어 남포는 서천·비인·홍산·보령·청양·대흥·덕산·결성 등과 함께 홍주진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조 13년(1467) 병조의 의견에 따라 남포진의 군대는 비인진에 이합되고 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진의 효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고려 말 고남포 시대와, 조선 초의 고남포나, 이동 직후의 남포는 왜구 침입에 대비한 군사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웅천천 하구 수군 진영인 마량진의 2선 방어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지방제도와 군사제도가 정비되고 왜구 침입이 줄어들면서 행정적 기능의 일반적인 군현이 되었다.

現 남포로의 치소 이동 후 고남포지역은 서남쪽 3km 지점인 현 웅천읍 대천리에 중심지가 형성되면서 고읍면 대천리로 불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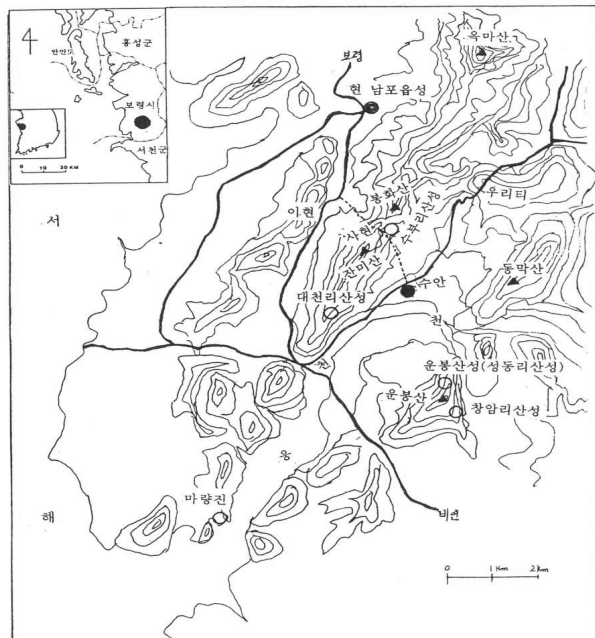
고남포 시기에는 보령에서 남포를 거쳐 비인으로 통하는 도로가 주로 남포의 사현(沙峴: 현재의 웅천읍 수부리와 남포면 옥서리 사이의 고개)을 통하였으나, 치소 이동 이후 부터는 사현을 통하는 도로는 쇠퇴하고, 이현(梨峴)을 넘어 잔미산 북쪽을 지나는 길(현 국도 21호)을 많이 이용한 것 같다. 대동여지도에는 이현을 통하는 도로와 이현은 표시 되고 있는 반면, 사현은 표시가 없으며, 대동지지 등 모든 지리지도 남로(南路)는 이현을 이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현을 통하여 비인으로 통하게 되면 반드시 웅천면 대천리 지역을 지나게 되며 그리 하여 현재의 웅천 철교 위에 웅천천을 건너는 돌다리가 건설되었다.

조선후기 웅천천 하구지역에 청연포·웅천포 등의 포구가 발달하여 물자의 집산지 기능이 발달하였는데 대천리 지역은 고남포(수안)보다 웅천천의 하류에 있어서 이런 포구와 연결된 수운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이러한 곳에 큰 도로가 지나면서 육로와 수로의 접점이 형성되어 물자 교역이 이루어지는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군현의 청사 소재지와, 해로와 하천수운과 도로의 접점, 교통수단의 결절점(結節點)이나 물산의 집산지에 장시가 형성되었는데 대천리 지역은 수운과 육로의 접점이었기 때문에 고읍 치소였던 수안이 아닌 이곳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남포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현청사(縣廳舍)가 있는 현 남포지역은 다른 군현의 읍치소와는 달리 읍내장이 형성되지 못하여 단지 행정치소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읍치소 이동 후에도 고남포 지역이 주민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남포가 남포현 지역의 중심지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후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 개편 후에 웅천읍 대천리는 계속 시장이 서고, 면사무소·초등학교 등이 설치



남포현 치소의 이동

되면서 웅천면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장항선 철도의 웅천역이 현재의 웅천읍 대창리에 설치되면서 모든 기능이 웅천읍 대창리에 옮겨지고 현재는 구장터로만 남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남포는 행정 및 군사방어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현치소 이동 후에는 現 남포가 단지 행정적 기능만 수행한 반면 고남포 지역은 주민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계속 수행하여 최근까지도 보령시 남부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2. 군사조직

1) 군사조직

조선시대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 있었다. 지방군은 각기 요충지에 증설된 영진군(營鎭軍)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외침에 대비한 실질적 국방병력이었다. 세조 원년에 이르러 군익도(軍翼道) 체제로 방어체제를 편성하여 지방군을 운용하였다. 군익도 체제는 중요지역에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주위의 여러 읍을 중익·좌익·우익의 3익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진관 체제의 선구적 조치가 되는 것이었다.

군익도(軍翼道) 체제가 성립되기 전에는 남포에는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鎭城이 설치되면서 군사 요충지가 되었다. 조선 태조 6년(1397)에는 순성진(蓴城鎭: 현 태안), 이산진(伊山鎭: 현 덕산)과 함께 남포진(藍浦鎭)이 설치되어 충청도의 3진으로서, 충청도 육군의 중요 3대 방어기지가 되었고 군정관인 첨절제사(僉節制使)가 파견되었다.

이어서 세종 29년(1447)에는 방어의 중요도에 따라 고을을 상긴(上緊), 중긴(中緊), 하긴(下緊)으로 구분하여 무관임명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이때 충청도는 태안과 남포를 주진(主鎭)으로 하고, 비인을 상긴으로, 서천을 중긴으로, 서산·결성·보령·해미·당진 등을 하긴으로 하였으며, 남포는 연변의 중요한 고을이라 하여 무과나 무재록(武才錄)에 올라 있는 실력 있는 무관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군익도 체제 이전에도 남포는 군사 요충지 기능을 수행하다가 세조 1년(1455)에 군익도 체제제가 정비되면서 여기에 따라 편입된다.

군익도 체제는 연해 요해지의 방어뿐만 아니라 인근 내륙 고을의 방어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중요지역에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인근 고을을 익(翼)에 분속시켰는데, 남포진을 거진으로 하여 중익을 남포·비인·홍산으로 하고, 좌익은 한산·서천·임천으로 하며, 우익은 보령·결성으로 하였다. 이러한 군익제도는 조선시대 전국의 지방군 조직이 처음으로 획일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방태세가 지역방위를 중점으로 하여 확대

조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조 3년(1457)에는 군익체제를 폐지하고 지역단위 방어체제인 진관체제(鎭管體制)로 개편되었다. 이 체제에서는 각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군직을 겸하게 하여 지역 방위 체제를 갖추게 한 것이다. 충청 서남부 지역은 홍주에 거진(巨鎭)이 설치되어 남포는 서천·비인·홍산·보령·청양·대흥·덕산·결성 등과 함께 홍주진관에 속하게 된다.

이 진관체제에 의하여 육군의 군사 지휘체계가 병마절도사(중2품, 주진)-첨절제사(중3품, 거진)-동첨절제사(군수 이하 중4품 이하, 제진)로 구성되었다. 이 진관체제에 의하여 거진은 홍주가 해당되었고, 보령현과 남포현은 제진이었다. 거진의 첨절제사나 제진의 동첨절제사는 따로 파견되지 않고 수령인 목사나 현감이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령현과 남포현의 현감은 진관 체제 하에서 홍주목사의 군사적 지휘를 받게 되었다.

한편 수군에 있어서도 육군의 진관 편성 체제에 따라 역시 진관 조직을 갖추었다. 세조12년(1466) 군제 개편시 수군의 지방 최고 사령관을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라고 했다가 이어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정3품)로 개칭했으며, 통칭 수사(水使)로 불렸다. 수군은 육군과는 달리 수령의 겸임이 없고, 수사 밑에 우후-첨절제사-만호 등의 직함을 두어 수군을 지휘하게 하였다.

이같이 정비된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각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설치하여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로 하여금 각기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보령과 남포는 육군은 홍주의 거진을 통하여 충청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게 되었으며, 수군은 보령의 오천에 수군절도사영(수영)이 설치되어 휘하의 첨사·만호를 지휘하면서 충청도 지역 해안 방어의 최고 사령부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전국이 모두 진관체제로 체계적인 국방 조직이 짜여졌다고 하나 모든 지역에 무장한 군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 군정(軍丁)이 있었으나 그들은 징발되면 중앙에 번상하거나 또는 특수 지역에 부방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각종 군사가 비번인 상태로 거주지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략상의 특수지대가 전국에 설정되어 불시의 위급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군사가 일정한 곳에 체류하였는데 이를 유방군(留防軍)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뜻하지 않은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도의 긴요한 제진에는 유방병을 두었는데, 충청도의 주진에는 3려(旅), 비인·남포·태안 등의 진에는 각 2려(旅)를 둔다고 하였다. 이것은 남포가 해안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현감을 임명할 때 병조와 협의하는 규정과 함께, 진관 체제상 홍주진관 소속과는 별도로 유방병이 주둔하는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충청도 진관체제 편성표

병사 2(관찰사·충청병사) 수사 2(관찰사·충청수사)

관찰사		병사·수사 겸함 감영 : 충주→공주	
육군	병사·우후	병영: 해미→청주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충주진관) 충주목사	청풍·단양·괴산군수	충주판관, 연풍·음성·영춘·제천 현감
	(청주진관) 청주목사	천안·옥천군수	청주판관, 직산·목천·문의·회인·진천·보은·영동·황간·청산 현감
	(공주진관) 공주진관	임천·한산군수	공주판관, 전의·안산·은진·회덕·진잠·연산·이산·부여·연기·석성 현감
	(홍주진관) 홍주목사	서천·서산·태안·온양군수	홍주판관, 평택·홍산·덕산·청양·대흥·비인·결성· 남포·보령 ·아산·신창·예산·해미·당진 현감
수군	수사·우후	수영 : 보령	
	(첨절제사)	(만호)	
	(소근포진관) 소근포첨사	당진포·파지도 만호	
	(마량진관) 마량첨사	서천포 만호	

2) 충청수영

(1) 충청수영의 설치

충청수영이 언제 현재의 위치인 보령시 오천에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수군도안무처치사는 보령현 서쪽 대회이포(帶回伊浦)에 머무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지리지』 이전에 이미 보령 오천에 수영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7군데는 만호가 머무른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오천은 이 당시에 이미 가장 격이 높은 수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복사본으로만 전해오는 『忠淸水營事例集』과 이를 근거로 1915년에 작성된 『鰲川郡誌』에는 “洪武二十八年丙子洪自海爲僉使古巒”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태조 5년(1396년) 홍자해를 고만에 첨사로 임명한 것을 충청수영의 시초로 보고 있다. 결국 최초의 충청수영은 고만에 설치되었다가 대회이포 즉 오천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고만(高巒)은 수영이 있던 오천면 소성리에서 남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현재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솔섬(松島)이 있는 곳의 지명이다. 이 고만만

호영은 오천의 수영과는 약 4km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세조 6년(1460) 만호영이 혁파되고 선군(船軍)은 처치사영(수영)과 좌도 도만호영(소근진)으로 분속된다.

오천의 수영은 태종 9년(1409)에 이구진(李龜鎭)을 병사 겸 수군도절제사로 임명해 홍주목 관하에 두게 하였고, 1421년(세종 3)에는 원윤(元胤)을 도안무처치사로 임명하였으며, 1447년(세종 29)에는 도안무처치사 박배(朴培)가 영사 건립을 시작하였고, 1464년(세조 10) 도안무처치사 정득혜(鄭得蕙) 재임시에 처음으로 우후(虞侯)를 두었다. 1467년(세조 13)에는 김봉원(金奉元)으로 처음으로 수군절도사를 삼았다.

그리고 수군절도사와 우후 체제가 갖추어진 후인 1510년(중종 5) 비로소 돌로 성을 쌓았는데, 성의 규모는 주위가 3174척, 높이가 11척, 그 안에 4개의 우물과 한 개의 연못이 갖추어졌다. 이 축성작업을 지휘하여 1년여 만에 완성한 인물은 수사 이장생(李長生)이었다. 이리하여 수사와 우후 그리고 수영성이 갖추어진 명실상부한 충청수영의 체모가 보령 오천에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충청수영은 갑오개혁 이후인 1896년 탁지부 훈령으로 홍주 관찰사 이승우(李勝宇)의 등훈(騰訓)에 의해 폐지되었고, 폐영 5년 후인 1901년 군부훈령으로 보령군수 권성수(權聖洙)가 제 군속(諸軍屬) 및 각 동정(各洞丁)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객사 등 몇몇 건물만을 남겨두고 모두 불태워버리면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충청서해안 방어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던 충청수영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2) 충청수영의 입지조건

충청수영은 천수만 입구에서 육지 쪽으로 뻗어 들어간 좁고 긴 만안(灣岸)에 위치한다. 이곳의 조수간만의 차는 5.4~7m에 이르고, 조류의 속도는 시속 8.9~9.3m에 달하여 매우 빠르다. 조류의 방향은 만의 입구에서 천수만의 방향에 따라 밀물 때는 북쪽, 썰물 때는 남쪽으로 흐른다. 충청수영 앞에서의 조류방향은 만의 형태에 의해 북동, 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평상시의 선박운항에 불리할 수 있으나 해류의 방향을 잘 알고 이용하는 측에는 별 지장이 없고, 조류의 방향을 모르고 내습하는 적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된다.

천수만이 안면도·원산도·삽시도·효자도 등으로 둘러싸이고, 특히 충청수영으로 통하는 만의 입구에는 황도·월도·육도·상목도·하목도·안마도 등 작은 섬들과 수많은 암초들로 막혀 있어 수영으로 통하는 만에는 파도가 전혀 없다.

서해바다에서 충청수영으로 통하는 만은 하천처럼 폭이 좁기는 하지만 수심이 깊다.

만의 입구에서 내륙 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충청수영 앞은 현재 간조시에도 수심이 6.2m에 달한다. 또한 충청수영성이 위치한 곳은 만의 중심부를 향하여 육지가 돌출된 곳에 설치되어 특수한 시설이 없이도 군선을 접안시키는 데도 유리하였다. 만으로 내민 수영성을 축조한 산등성이와 그 서남쪽에 내민 산등성으로 인하여 수영성 앞의 포구는 자연적인 U자형을 이루어 안전한 천혜의 항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은 충청수영이 설치된 오천항이 군항으로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충청서해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효과적인 속진의 지휘와 방어에 유리하다

그러나 조선후기 숙종대에 이르면 수도권 방어가 중시되면서 강도(江都)와 순치(脣齒) 관계에 있는 태안의 안흥(安興)으로 수영을 옮기자는 논의에 이르러서는 “위치한 곳이 외지고 앞 바다와의 거리가 아주 먼데다가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어 멀리 망을 보는 데 방해로움이 있으며 선창(船倉)이 불리하다” 는 이유가 대두되는데, 이는 침입해 오는 왜구 방어를 위한 군항으로서의 유리한 점보다는, 강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대륙 쪽을 경계하면서 수도권 방어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지 못한 점이 부각된 것이다. 그만큼 조선 후기에 이르면 오천 충청수영 본영의 중요성은 입지 조건으로서의 유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 방어체제의 재편 과정의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한때는 수사의 행영(行營)이 안흥에 설치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오천에 충청수영의 본영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유리한 입지 조건 때문이었다. 『비변사등록』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보면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오천의 수영은 앞에서 지적한 조건들 때문에 적지(適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변사등록』에

수영의 위치는 그 편의함을 얻어서 비록 하나의 산등성이가 해문(海門)을 가로막았다 하여도 연대(煙臺)가 그 위에 있어 이에 올라 바라보면 서남 대해가 모두 눈 밑에 있고, 연대(煙臺)는 수영성 밖 가까운 곳에 있어 항상 감시하는 곳입니다. 또 원산도와 안면도가 아울러 수영 앞에 있으므로 바람이 잔잔한 6개월은 우후가 원산도에 방수(防守)하러 들어갔으니 옛날 설치한 규례는 반드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략- 또 호서의 수군의 남쪽에 7읍이 있는데, 수영은 이수(里數)로 따져 가운데에 위치하여 급박한 사태가 있을 경우 모두 제때 징발할 수 있습니다. 영을 안흥으로 옮기는 경우 임천·한산 등 고을의 배는 큰 바다를 돌아서 와야 할 형편이므로 반드시 기일에 뒤질 우려가 있고, 또 그 위치가 외롭게 딱 떨어져 있어서 수군이 용거할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다.

(3) 권설봉수의 운영

충청수영은 자체 권설봉수(權設烽燧)를 전방 바다의 후망을 위하여 도서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바다 깊숙한 지역으로 일직선으로 봉수대를 설치하여 外洋 감시를 위하여 운영한 점이 특징이다. 즉 어청도봉수→(18km)→외연도봉수→(19km)→녹도봉수→(23km)→원산도봉수→(8.7km)→수영 망해정 봉수의 전보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는 바다를 통하여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왜적을 신속히 탐지하는 기능과 함께, 조선 후기 급증하는 이양선 등 서양 세력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이다.

수영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 최종 망해정(望海亭) 봉수의 위치는 수영 뒤의 산줄기가 약간 남쪽으로 뻗어 내려간 오천면 영보2리 밤까시 마을의 뒷산에 위치한다. 이 산은 해발 약 110m 정도에 불과하지만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에 형성된 봉우리이기 때문에 내륙 쪽의 전망만 제외하고 전면과 좌우의 전망이 아주 좋다. 수영에서는 남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수영을 한눈에 내려다봄과 동시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특히 원산도를 가장 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실 수영이 만입한 곳에 있고 더구나 앞에는 보령시 천북면을 이루는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어 외양을 후망(後望)하는 데는 상당한 약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이 망해정 봉수가 있어 수영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깊숙한 만입지에 들어앉은 수영과 외양을 연결해 주는 수영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4) 속진의 위치 변화

조선시대 충청수영 속진의 위치 변화는 다음 표와 같이 3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 기	수 군 진	현 재 위 치	
【1기】 (15세기 이후) (세종실록지리지)	대 회이포(수군도안무처치사) 오근이포(좌도도만호) 구정(우도도만호) 서천포(만호) 고만량(만호) 파치도(만호) 당진(당진) 대진(만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동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진리	
【2기】 (16세기 이후) (경국대전, 동국여지승람)	수영(수군절도사) *요아량수(수사분병수지) 소근진(첨절제사) *안흥진(소근첨사 분병수지) 마량진(첨절제사) *도두음곶(마량첨사분병수지) 당진포(만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면읍 고남리 영목(?)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2리	

	*난지도수(당진만호 분병수지) 파지도(만호) *고파지도수(파지만호 분병수지) 서천포(만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대)난지도리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동	
【3기】 (17세기 중반이후)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대동지지)	수영(수군절도사) 소근진(첨절제사) 마랑진(첨절제사) 안흥진(첨절제사) 평신진(첨절제사) 서천포(만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충남 서천군 서면 마랑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충남 서산시 대산면 화곡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동	

여기에서 각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기에서의 수군진 입지 위치 특징은 남방의 왜구 방어를 위해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만입지의 입구나 만입지의 안쪽에 위치한다.

2기에서는 기본적으로 1기 때와 크게 변하지 않고, 진관체제(鎭管體制)에 의한 지휘 계통의 확립을 가져온다. 즉 수사→첨사→만호의 지휘계통 확립이다. 이때는 만입한 곳에 위치한 수군진 위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해처, 특히 바다를 감시할 수 있는 수군진의 외양(外洋) 쪽에 분병수지(分兵戍地)를 설치하여 외양 쪽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한 남방의 왜구 방어가 중시되던 시대여서 충청수영은 경상도 통영의 삼도수군통제영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3기는 남방 왜구 방어보다는 대륙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서 강도(江都)와 수도권 방어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강도와 순치(脣齒) 관계에 있는 서산·태안반도 쪽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여기에 안흥진(安興鎭)과 평신진(平薪鎭)을 신설하고, 안흥진은 수사행영과 방어사영을 설치하기도 하고, 평신진은 장용영 소속으로 편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수영은 강화도의 삼도수군통제영 소속으로 변화된다.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수영 본영의 중요성은 약화된다. 한편 3기 때의 신설·이설된 진의 위치는 조운과 강도 구원에 중점이 주어지면서 만입지가 아닌 외양 쪽으로 돌출된 곳에 위치하며, 성벽을 구축하지 않았음이 관찰된다.

3. 교통 통신 체계

1) 봉수(烽燧)

우리나라 봉수의 종류는 경봉수(京烽燧)·연변봉수(沿邊烽燧)·내지봉수(內地烽燧)로 구분된다. 이중 연변봉수는 해안에 설치되어 연대(烟臺)라고 불렀고 변경(邊境)의 군사적 상황을 처음으로 수집하여 신속하게 중앙에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는 봉수이다.

또한 직봉(直烽)·간봉(間烽)의 구분이 있는데, 이는 직선(기간선로)봉수, 간선(보조선로)봉수의 약칭으로 그 봉수가 위치한 선로상의 구분이다.

보령지역의 육지에 있는 봉수는 보령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는 관계로 연변봉수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직봉 5거 중 충청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간봉의 일부이다. 따라서 보령지역의 봉수대의 위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안 감시를 통한 군사적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기능도 가져야 했으므로 지역의 관방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설치되고 이설(移設)되고 폐지(廢止)되는 과정을 밟는다.

(1) 15세기(세종실록지리지)의 보령지역 봉수대와 위치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한 보령지역의 봉수대는 비인 칠지산에서 남포 덕산(德山)→남포 여도재(余道帖)→보령 조침산(助侵山)→홍주 홍양곶(興陽串)을 거쳐서 현재의 홍성군 결성 고산(高山)으로 이어지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비인 칠지산에서 남포 통달산(通達山)→남포 여도재(餘道帖)→보령 조침산(助侵山)→홍주 홍양곶(興陽串)을 거쳐서 결성 고산으로 이어진다. 『여지도서』에는 비인 칠지산에서 남포 옥미봉(玉眉峰)→보령 조침산→홍주 홍양곶을 거쳐서 결성 고산으로 이어지고, 『대동지지』에서는 비인 칠지산에서 남포 옥미봉→보령 조침산→홍주 홍양곶을 거쳐서 결성 고산으로 이어지고, 『충청도읍지』와 『증보문헌비고』에서도 비인 칠지산에서 남포 옥미봉→보령 조침산→홍주 홍양곶을 거쳐서 결성 고산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령 지역에 전달하는 서천군 비인현의 칠지산(漆枝山)봉수나 보령지역의 봉수를 전달받는 홍주목 결성현의 고산(高山)봉수는 조선시대 기간 동안 내내 변동이 없으며, 보령현의 조침산 봉수와 홍주목의 홍양곶 봉수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기간 동안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포현의 봉수대가 조선 전·후기를 거치면서 위치 변화를 가져오고 2개처로 운영되면서 1개처로 운영된 다른 군현보다 많이 설치된 점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각 봉수대는 다음과 같다.

남포현조에

봉화가 2곳이니, 현의 서쪽 덕산(德山)과 【남쪽으로 비인(庇仁) 칠지(漆枝)에, 북쪽으로 본군의 여도재(余道帖)에 응한다.】 현의 북쪽 여도재(余道帖)이다. 【북쪽으로 보령(保寧) 조침산(助侵山)에 응한다.】

보령현조에

봉화가 1곳이니, 조침산(助侵山)이다. 【현의 서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남포(藍浦) 여도재(余道帖)에, 서쪽으로 홍주(洪州) 임내인 홍양(興陽)의 고산(高山)에 응한다.】

홍주목조에

봉화가 2곳이니, 홍양 산성(興陽山城)과 【주(州) 서남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보령(保寧) 조침산(助侵山)에, 북쪽으로 결성(結城) 고산(高山)에 응한다.】 고구성(高丘城)이다.

여기서 남포현의 덕산봉수 위치는 현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의 해발 100m의 덕산봉(德山峰)이라 불리는 곳이다.

한편 남포현의 여도재봉수 위치는 현재 여도재라는 지명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위치를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와 제석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인 등경산(登敬山) 정상에 봉수대지가 있는데, 이 봉수대지가 여도재 봉수라고 할 수 있다.

보령현의 조침산 봉수 위치는 현재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의 해발 228.9m의 봉대산(奉大山)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침산(助侵山 또는 阻侵山)으로 불리어 왔으나 현재는 봉대산으로 불리며 그 유지가 남아 있다.

홍주목의 홍양곶 봉수는 원래 조선시대에는 홍주목에 속했으나 1914년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보령시 천북면에 편입된 곳인데, 현재는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해발 202.6m의 봉화산으로 불리며 그 유지가 남아 있다.

(2) 16세기(신증동국여지승람) 보령지역의 봉수대와 그 위치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봉수대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남포현 봉수조에

통달산 봉수(通達山烽燧)는 남쪽으로는 비인현(庇仁縣) 칠지산(漆枝山)과 호응하고, 북쪽으로는 여도재(餘道帖)와 호응한다. 여도재 봉수(餘道帖烽燧)는 현 북쪽 8리에 있다. 서쪽으로는 보령현(保寧縣) 조침산(助侵山)과 호응하고, 남쪽으로는 통달산(通達山)과 호응한다.

보령현 봉수조에

조침산 봉수(助侵山烽燧)는 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남포현(藍浦縣) 여도재(餘道帖)와 호응하고, 서쪽으로는 홍주(洪州) 홍양곶(興陽串)과 호응한다.

홍주목 봉수조에

홍양곶 봉수(興陽串烽燧)는 동쪽으로 보령현(保寧縣) 조침산(助侵山)과 호응하고, 북쪽으로 결성현(結城縣) 고산(高山)과 호응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보령지역 봉수대는 『세종실록지리지』와 비교했을 때 보이는 변화는 남포현의 덕산 봉수가 없어지고 통달산 봉수가 설치된 것이다. 통달산 봉수는 현재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의 해발 182.8m의 통달산에 있던 봉수이다. 나머지의 여도재, 조침산, 홍양곶 봉수의 위치는 변화 없이 15세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17세기(동국여지지) 보령지역의 봉수대와 그 위치

『동국여지지』에 기록된 보령지역의 봉수는 다음과 같다.

남포현 봉수조에

통달산 봉수는 남쪽으로는 비인 칠지산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여도재에 응한다 여도재 봉수는 현의 북쪽 8리에 있는데, 서쪽으로는 보령현의 조침산에 응하고, 남쪽으로는 통달산에 응한다.

보령현 봉수조에

조침산 봉수는 현 서쪽 45리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남포현 여도재에 응하고 서쪽으로는 홍주 홍양곶에 응한다.

홍주목 봉수조에

홍양곶 봉수는 동쪽으로는 보령 조침산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결성의 고산에 응한다.

『동국여지지』의 보령지역 봉수대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

(4) 18세기(여지도서) 보령지역의 봉수대와 그 위치

『여지도서』에 기록된 보령지역의 봉수대는 다음과 같다.

남포현 봉수조에

옥미봉 봉수(玉眉峰烽燧)는 남쪽으로는 비인현 칠지산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보령현 조침산 봉수에 응한다.

보령현 봉수조에

조침산(阻侵山) 봉수는 현 서쪽 45리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남포 옥미봉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홍주 홍양 봉수에 응한다.

홍주목 봉수조에

홍양봉수(興陽烽燧)는 남쪽으로는 보령 조침산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결성 고산 봉수에 응한다.

『여지도서』에 보이는 보령지역 봉수대의 변화는 16세기에 비교하여 남포현의 통달산 봉수와 여도재 봉수가 없어지고, 옥미봉(玉媚峰) 봉수가 신설된 점이다. 옥미봉 봉수는 현재의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와 수부리, 남포면 옥서리의 경계선 상에 있는 잔미산의 최고 봉인 해발 416m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따라서 보령지역의 전보관계는 조선 말기 우리나라 봉수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비인 칠지산 → 남포 옥미봉 → 보령 조침산 → 홍주 홍양곶 → 결성 고산의 전보관계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5) 도서(島嶼)지역의 권설봉수(權設烽燧)

권설봉수(權設烽燧)란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한 봉수대를 말한다. 보령 도서 지역 권설봉수는 충청수영에서 운영한 봉수이다.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는 조선시대는 행정 구역상 홍주목에 속한 도서들이었으나, 충청수영의 관방 체제와 관련하여 충청수사가 관장하던 섬들이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외연도·녹도·원산도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녹도리·원산도리로, 그리고 어청도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 어청도리로 개편되었다.

어청도는 뱃길로 군산에서 서쪽으로 72km, 충청수영이 있었던 보령 오천에서 서남방으로 68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조선시대는 잉분도(荇盆島)로 불리기도 하였다. 외연도는 어청도의 동북방 19km 지점에 있으며, 오천에서 서남방 5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외안도(外安島)로 불리기도 하였다. 녹도는 외연도 동북방 16.25km 지점에 있으며 오천에서는 서남방 31km 지점에 있다. 원산도는 녹도의 동북방 16.9km 지점에 있으며 오천에서 서남방 12.15km 지점에 있다.

이렇게 충청수영에서 서남방으로 바다를 향해서 뻗어내려 간 원산도→녹도→외연도→어청도를 연결하는 선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바다를 통하여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왜적을 감시하고, 또한 바다 건너 중국을 경계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보령지역의 봉수 노선도

조선전기의 왜적 감시 역할이 조선후기에 오면서 그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접근해 오는 이양선 등 서양세력에 대한 경계 강화 차원에서 수영의 권설봉수(權設烽燧)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 권설봉수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신속히 수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수영 망해정의 전보 관계를 가진다.

한편 충청수영 권설봉수는 봉수대 간의 거리도 어청도→19km→외연도→16.25km→녹도→16.9km→원산도→12.15km→수영 망해정

으로 육지의 봉수대 간 거리보다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통망(通望)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해무(海霧)로 인한 어려움은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령지방의 봉수대

순	봉수대명	위 치	해발 고도	특 징	출토유물	기 록
1	덕산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100m	조선초기 사용, 주변에 돌이 흩어져있음 약간의 흙무더기 흔적		세종실록지리지
2	등경산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180.2m	백제식 산성 내에 있음 돌무더기들이 훼손된 상태 여도점봉수대로 추측	청해파문와 편 백자편 시루편 등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3	통달산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182.3m	웅천천 하구의 북안에 위치 한말 포대 조성 후, 민묘 조 성으로 완전 훼손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4	옥미봉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416.8m	충청지역 최고봉에 위치 5개의 봉돈 흔적 복원으로인한 원형 훼손		여지도서 대동지지 등
5	신흥리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277.8m	토축으로 된 원추형 모양 옥미봉 봉수의 보조용으로 추측		기록 없음

6	대천리산성 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241.2m	대천리 산성 내에 있음 고려때 사용된 것으로 추측 민묘로 훼손	어골문와편	기록 없음
7	조침산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228.9m	복원으로 원형 훼손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8	홍양곶봉수 (육지봉수)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202.6m	복원 시도하다 중단	청해파문 와편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9	망해정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118.7m	한말 포대 설치 흔적 충청수영 권설봉수	기와편 그릇편	대동지지
10	원산도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17.9m	원형이 잘 보존됨 다듬은 돌로 석축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11	녹도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90여m	원형이 잘 보존됨 자연석으로 석축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12	외연도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73m	원형이 잘 보존됨 자연석으로 석축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13	어청도봉수 (권설봉수)	전북 군산시 옥서면 어청도리	205m	원형이 잘 보존됨 자연석으로 석축 충청수영 권설봉수 현재 현지 해군부대 관리		대동지지

2) 역원(驛院)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는 대략 30리마다 역(驛)과 원(院)을 두었는데, 주로 대로변의 주현 각읍에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간선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벽지에 설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 전국 41개 선, 540여 역, 1,200개 원이 있어 역마와 이졸을 두어 관청의 공문서 전달, 공납물 수송 등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공무 여행자에게는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식을 알선하였다. 이 경우 조정에서 발급한 마패가 필요하였다. 일반 관리가 역원을 이용하였다면, 고급 관리는 지방 관아에 부설된 객사를 이용하였고, 일반인은 주막을 이용하였다.

충청도에는 조선시대 5개의 역도(驛道, 도로망)가 있었다. 보령현을 지나가는 역도는 홍주에 출발을 둔 금정도(金井道)로 세천·풍전·하천·해문·청연·몽웅·광시·용곡·시흥·순성·장시·창덕·일흥·화천·급천 등 16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보령현 지역에 있던 역은 청연역(靑淵驛)으로 현재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역말이다.

보령시 남부지역을 지나는 역도는 공주에 찰방을 둔 이인도(利仁道)로 영유·신공·두곡·청화·남전·숙흥·유양·은산·용전 등 9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남포현의 역은 이인도의 마지막 역인 남전역(藍田驛)으로 현재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남전 마을이다.

역원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고려시대는 보령현이나 남포현에는 역이 설치되지 않았다가 남포현의 남전역은 1413년(태종 癸巳)에 처음 설치되었고, 보령현의 청연역은 정확히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남포현과 비슷한 시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전역과 청연역은 지역별 중요성에 따라 역로를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로 구분할 때 이인도와 금정도의 모든 역이 소로로 구분됨에 따라 남전·청연역도 다른 역과 마찬가지로 소로에 해당하였다. 대로는 주로 수도권 주위의 역도가 해당되었고, 중로는 충청도에는 충청좌도의 연원도·울봉도·성환도의 일부 역이 해당되었다. 이들은 오늘날 경부축에 해당하는 도로였다.

역마의 먹이 등 경비로 하기 위하여 관아에서 정하여 사용하는 전토가 역위전(驛位田)이었는데, 대로(大路) 20결(結), 중로(中路) 15결, 소로(小路) 5결을 지급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국에는 9개의 간선도로(幹線道路)가 있었는데, 서울과 보령·남포현을 연결하는 도로는 ‘제8로 서울-소사-충청수영간 간선 및 지선도로’에 해당하였다.

이에 의하면 서울-(10리)-동작진-(20리)-과천-(10리)-갈산참-(20리)-미륵당-(20리)-
 ㄴ(10리)-노량진-(22리)-금천(시흥) —(20리)——┐

유천(수원)-(25리)-중저(수원)-(10리)-청호역-(8리)-진위-(3리)-소사-(20리)-평택-(10리)-
 탁천-(20리)-요로원(아산)-(5리)-어래현-(15리)-곡교천-(10리)-신창-(20리)-신례원(예산)-
 (20리)-인후원(홍주)-(40리)-광천-(40리)-충청수영-보령-남포-비인이었다.

여기에 의하면 보령에서 서울까지 326리이나, 동국여지승람에는 보령현에서 서울까지 409리, 남포현에서는 447리라고 하였다. 남포읍지에 의하면 남포에서 서울까지 447리에 5일 일정의 도로라고 하였다.

한편 충청수영사례집에 의하면 광천(40리)-홍주(30리)-대홍(30리)-예산(30리)-신창(40리)-아산(40리)-평택(40리)-진위(40리)-수원(50리)-시흥(50리)-경중(30리) 도합 420리가 표시되고 있다.

충청도읍지의 보령·남포현조에 의하면 치소에서 주요 방향의 도로 거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령현의 경우는 동쪽은 청양 경계까지 47리, 홍주경계 47리, 남쪽은 남포경계 29리, 북쪽은 결성경계 25리, 서울은 447리, 감영(공주) 140리, 병영(청주) 230리. 수영 20리, 전영(홍주) 50리 등이다.

남포현은 동쪽은 마치대로(馬峙大路)로 홍산 경계 49리, 감영 130리 1일, 병영 210리 2일, 남쪽은 이현치대로(梨峴峙大路)로 비인경계 40리, 서쪽은 소로로 바다까지 7리, 북쪽은 북정자대로로 보령경계까지 9리, 수영까지 40리, 홍주진 전영까지 90리, 서울까지 447리 5일 걸리는 도로로 표시하고 있다.

원(院)은 출장 가는 관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관집 즉 관용여관으로 요로(要路)나 인가가 드문 곳에 설치되었다. 보령지역에 있었던 원은 다음과 같다.

청라원(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남천원(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보원(보령현 3리), 황천원(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갈두원(보령시 대천동 갈머리), 위수현원(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등이 있었다.

3) 조운(漕運)

조선시대 현물로 징수한 세곡의 수송은 수로를 이용하였는데, 하천과 해안 요지의 조창에서 이를 모아 중앙의 경창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을 조운이라고 한다. 충청도 모든 군현의 세곡을 모으는 조창은 아산의 공세곶창(貢稅串倉)이었다. 보령현과 남포현의 세곡도 모두 공세곶창으로 옮겨져서 서울로 운송되었던 것이다. 아산의 공세곶창으로 옮기기 위해 주로 수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령현의 경우는 오늘날 주교면 관창리의 해창 마을에 해창(海倉)이 있었고, 남포현의 경우에도 오늘날 웅천읍 관당리의 무창포에 해창이 있었다. 그 외 세곡을 거둬 모아놓는 창고가 여러 곳에 있었다.

한편 경상도나 전라도의 세곡선이 서울로 가는 길인 서해안의 조운선로에서 보령 연안도 주요 통과 지점이었다. 전라도의 옥구 계화도 서쪽 배미도와 고군산도 사이를 통과하여 서천의 연도 동쪽을 지나 보령의 원산도·고대도·삼시도 사이를 거쳐 서산의 안흥진과 가의도 사이로 들어간다.

충청도 해안을 통과하는 조운선의 보호와 안내는 충청수영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남부 지역은 마량첨사가, 북부 지역은 소근첨사가 대호송관(大護送官)의 책임을 졌다. 그리하여 전라도에서 충청도에 들어오면 마량진 첨사가 책임자가 되어 서천·보령 연해안 지역을 호송하여 안흥진에서 소근첨사에게 넘기고, 소근첨사는 경기도 풍도 앞바다에서 경기도에 넘긴다.

한편 원산도는 조운제도 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원산도는 수영이 있는 오천에서 서남방의 바다로 8.7km 떨어진 곳으로, 현종 10년(1669) 이후에는 우후(虞侯)가 전선을 이끌고 나가서 진주하면서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을 점검하였다.

4. 목장(牧場)

우리 나라는 고대부터 운반·이동·동력의 수단으로 말이나 소가 큰 역할을 하여왔다. 따라서 이러한 말이나 소를 기르는 목장의 운영이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되면서 전국에 많은 목장이 설치되었다

조선 시대 목장의 수는 세종실록지리지에 53개소, 동국여지승람에 87개소, 목장지도에 200개소, 증보문헌비고에 209개소, 대동여지도에 114개 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분포는 전라도가 가장 많고 대부분이 경상도·경기도·충청도 순이다

이것은 조선 시대 목장이 육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목장이 대부분 섬이나 바다에 뽕족하게 내민 육지인 곳(串)에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장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니, 선조 27년에는 목장 40여 개가 폐지되고 屯田 내지는 牛牧場으로 개편되었고, 인조·효종 때는 전국 목장이 119개만 남겨졌고 숙종 때는 73개의 목장이 간전(墾田)으로 변하였다.

조선시대 보령지역에는 토진곶목장, 홍양곶목장, 원산도목장이 설치되어 국용(國用)의 말을 사육하였다.

우선 토진곶목장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옛 목장(牧場)이 1이다. 토진곶(土津串)에 있다. 둘레가 16리 34보인데, 안의 토장(土場)이 8리 40보요, 석장(石場)이 7리 36보요, 목장(牧場)이 118보이다. 다만 도랑물(渠水)만 있고, 또 띠(茅)와 고사리 풀만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위 기록에 의하면 세종 초기까지 남포현 토진곶에 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과거 남포현에 해당하였던 보령시의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에서 바다 쪽으로 뽕족하게 내민 육지인 곳(串)은 웅천읍 소항리·황교리·죽청리·관당리 일대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석성, 토성으로 연결된 약 11km에 이르는 성이 있으니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토진곶 목장의 목장성이다.

그리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목장은 대부분 섬이나 바다 쪽으로 내민 육지인 곳에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곳 웅천 서부 지역은 일치되는 곳이다. 섬은 별도의 목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이도 방목이 가능하고, 串은 사방 중 한쪽 면만 막으면 방목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토진곶목장의 사용 시기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 8년(1426년)에 진곶목장(津串牧場)의 말(馬)을 서산 대산목장으로 옮기자는 논의와 함께 이듬해인 세종 9년(1427년)에 그대로 시행했다고 하므로 1427년에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세종 13년(1431년) 진곶목장은 1427년에 함께 폐장되었던 다른 목장들과 함께 우목장(牛牧場)으로 다시 사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폐지된 고목장(古牧場)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牛牧場으로서의 기능도 오래 가지 못하고 토진곶 목장은 세종 초기에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토진곶 목장의 설치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시대부터 조선 세종 때의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토진곶 목장의 폐장 이유는 긴 성벽으로 인한 관리상의 불편함과 水草가 나쁘고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토진곶 목장은 고려시대부터 대량의 말을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조에 홍양곶 목장에 대하여는 “홍양곶(興陽串) 목장은 둘레 49리 339보인데, 안의 토장(土場)이 1리 94보, 목장(木場)이 1리 62보인데, 물이 너무 많아서 풀이 좋지 아니하다. 국마(國馬) 437필을 놓아 먹인다.”라고 하였다. 이 홍양 목장은 효종 이전에 서산에 이속된 후 조선후기에는 폐장되었다.

홍양목장은 조선시대는 홍주목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일대이다. 천북면은 바다로 내민 곶 지형이어서 입구 부분만 짧게 막으면 되었다.

원산도 목장은 둘레가 40리인데, 바다 가운데 있어서 물과 풀이 모두 넉넉하므로, 국마(國馬) 100필을 놓아 먹인다고 하였다. 원산도 목장은 현종 때인 1699년에 서산 대산목장으로 이속시키고, 수군우후가 나가서 지키면서 조운선 점검을 하는 곳으로 삼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원산도도 조선시대는 홍주목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다.

5. 교육과 과거

유교이념에 기초한 조선왕조는 교육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문의 심화를 위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학생들은 초등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세워진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서울에서 4학, 지방에서는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사마시)에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1) 교육기관

고려와 조선시기에 있어서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표적인 관학 교육기관이 향교(鄕校)이다. 이 향교는 조선시대 일읍 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전국 모든 군현에 설치되어 군현 단위의 유일한 관학으로 공교육을 주도하였다. 보령지역에도 보령현의 보령향교와 남포현의 남포향교가 있었고, 조선말기 충청수영지역에 오천군이 신설되면서 오천향교가 생겨서 3개의 향교가 존재하였다.

향교의 교관(敎官)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는데, 부·목·도호부 등에는 종6품의 교수가 파견되고, 군·현에는 종9품의 훈도가 파견되었다. 보령향교와 남포향교에도 이 훈도가 각 1명씩 파견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오면 교관직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각 향교에서는 한 고을의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을 관에서 교임으로 뽑아서 향교의 강학을 담당하게 했다. 도유사(都有司)라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도유사 아래에는 장의(掌儀)가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리하여 조선후기의 향교는 도유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사족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남포향교의 〈재임안〉이나 보령향교의 〈청금록〉에 의하면 보령지역도 도유사·장의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교의 교생은 군현은 30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16세 이상인 자들이 입학하여 최대 40여 세까지 머물 수 있으며, 교생은 군역이 면제되었다. 향교의 교과 내용은 사서 오경 등 유교 경전과 사장학(詞章學)이 중심이었다.

향교에는 학전이 지급되었고, 교노(校奴)나 주변 농민들이 병작하였다.

향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제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그 의식 기능도 중요하였다. 향교의례는 문묘제례와 향음주례 등의 일반제례로 나뉜다. 문묘제례는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는 석전제(釋奠祭),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분향제가 대표적이다. 석전제의 초헌관은 지방의 수령이 맡았고, 아헌관은 도유사가 담당하였다.

배향인물은 학문과 도덕의 면에서 당시의 사림을 대표할 만한 사표가 되는 존재들이었다. 배향인물의 출신 지역을 보면 조선중기까지는 영남인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후로는 기호인들 특히 호서지방의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러번 변화를 거쳐 현재는 대개의 향교에서는 동서무(東西廡)에 배향되던 우리나라 유현 18현의 위패를 공자 및 4성의 위패와 함께 대성전에 올려 봉안하고, 중국 5성 이외의 여러 유현 중에서 송조의 유현 4현 또는 2현만 첨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보령지역의 보령·남포·오천향교도 중국5성과 송조4현 한국유현 18현 합계 27위를 봉안하였다.

문묘는 유학의 상징이었다. 문묘에는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하여 역대 선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 그 정신이 깃든 신성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향교 앞에는

‘대소인원과하마(大小人員過下馬)’라 하여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문묘에 대해 숭상의 뜻을 표하도록 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서 향교와 함께 서원(書院)이 있었다. 향교가 관학의 중등교육 기관이라 한다면 서원은 사학의 중등교육기관으로 지방 사림들에 의해 세워졌다. 서원의 시작은 조선중기 사림들이 정권을 잡아가면서,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 많은 서원이 설립되었다. 선현을 받들고 교육과 연구를 하던 서원은 향교와는 달리 각기 다른 사람을 제사지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서원은 사액(賜額)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연계되기도 했다. 서원은 개성 있는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지방 사림들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지만, 학파나 봉당적 성격이 많이 가미되었다.

보령지역에는 화암서원(花巖書院)과新安사(新安祠)가 대표적이다. 화암서원은 1610년(광해군 2) 당시 충청도 관찰사였던 정엽(鄭曄)이 서원영건통문을 보내고, 지역 사림인 구계우(具繼禹) 등의 협조로 청라에 건립되었다. 이어서 1686년(숙종 12)에 화암서원으로 사액되었다. 화암서원의 배향 인물은 처음에는 보령지방의 명현인 토정 이지함과 명곡 이산보를 배향하였다가 1723년(경종 3)에는 이몽규를 배향하고, 일제시대에는 이정암, 그리고 1971년에는 구계우를 배향하였다.

화암서원의 창립을 주도한 정엽은 명곡 이산보의 사위이고, 구계우는 이산보와 내외종간으로 그의 제자였다. 따라서 화암서원은 한산이씨 문중 중심으로 설립된 성격을 보인다. 배향인물도 보령지역 유력 성씨인 한산이씨 문중의 이지함과 이산보가 배향된 점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몽규는 보령 유력 성씨인 광산김씨 문중의 사위로 들어온 인물이었다. 한산이씨들이 광산김씨의 외손들이었으니 화암서원은 보령지역 유력 성씨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서원이었고, 서인 계열의 기호학과 인맥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령현 지역은 청라에 이지함을 배향한 화암서원이 광해군2년(1610)년에 만들어지고, 숙종 12년(1686)에 사액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서원 건립이 추진되었지만, 남포현 지역은 정조 말년인 1797년에야 현감 권상신(權常愼)과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新安사(新安祠)가 설립되었다.

신안사 설립의 계기·단서가 된 것은 남포현 신안면 지역의 지명이 옛날 주자가 살던 중국의 지명과 부합된다는 점과,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백이정이 이 고장 출신의 학자라는 점 등이었다. 주자와 송시열에 대한 존경이 남달랐던 현감 권상신(權常愼)의 발론(發論)을 계기로 향교 재임(齋任) 김우필(金愚弼)의 이름으로 통문을 돌리고, 현감의 도움, 유림들의 노력으로 1797년(丁巳年) 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여름까지 6개월

동안에 당시의 남포현 신안면에 신안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원금령 정책을 어겼다 하여 관찰사 한용화(韓用和)에 의해 얼마 후 훼손되었고, 1807년 지역 유생들의 노력으로 중건되어 주자·송시열·한원진·권상하·백이정·이제현 등 6명의 위패를 모셨다. 그러나 사액을 받지는 못했다.

배향인물의 성격을 통하여 조선후기 기호학과 중 남당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역 사족들의 위상강화와 관계 깊은 사우임을 보여준다.

2) 과거와 보령지역 사족 사회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지배하는 신분제 사회였다. 양반들에게 양반이라는 특권적 신분을 보장해 준 제도 중의 하나가 과거였다. 조선시대 과거제도 중 문과의 경우는 향교나 4학에서 공부한 후 소과(사마시)에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생원·진사가 되었고, 이어 문과(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생원·진사는 벼슬길이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국가나 사회로부터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공인 받은 신분이라는 점에서 양반사류(兩班士類)의 기저를 이루었던 신분이다.

남포현 거주 성관별(姓貫別) 생원·진사 급제자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31개의 성관(姓貫)이 등장하면서 55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는데, 양주조씨·경주이씨·전주이씨가 비교적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였고, 1명을 배출한 성관이 전체의 85%나 된다. 이것은 아마도 남포에 입향한 성관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곧 떠났을 경우와, 지속적으로 거주는 하였으나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경우로 보인다.

한편 보령현 거주 성관별 급제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포현보다는 많은 38개의 성관이 등장하면서 132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는데, 한산이씨·광산김씨가 가장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였고, 그 이외에 한양조씨·전주이씨·안동김씨·평강채씨·평산신씨 등이 비교적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1명을 배출한 성관은 전체의 47%이다. 이것은 남포현에 비해 보령현 지역에 입향한 성관들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령현 거주 급제자 132명은 조선시대 충청도지역 54읍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한 전국의 372개 지역 중 3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남포현 거주 급제자 55명은 충청도 54읍 중 36위에 해당하며, 전국지역 중에서는 132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보령현 급제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상위 9.7%에 해당되고,

남포현은 36%에 해당하여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군현의 크기 뿐 아니라 행정적·군사적 필요성, 그 지역에 있어서 사족의 유무에 따르는 토착적 기반과 풍토, 산물 등 여러 사회 경제적 유리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1) 남포현 지역

고려시대 이후로 남포현을 대표하는 토성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任氏·白氏·李氏를 들고 있다. 이들의 본관이 무엇이었던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현재의 풍천任氏·남포白氏·경주李氏들로 보인다.

이중 특히 남포현의 대표적인 토성인 남포백씨는 『동국여지승람』 남포현 인물조에 기록된 인물들이 모두 남포백씨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이래로 남포현에서의 남포백씨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명종 대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가 된 백임지(白任至), 고종 대에 대사성에 이른 백문절(白文節), 충선왕 때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가 되고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지고 원에 가서 주자학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퍼뜨렸으며 이제현(李齊賢)·박충좌(朴忠佐) 등의 제자를 길러낸 백이정(白頤正) 등이 그들이다.

한편 문과방목(文科榜目)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남포 거주 문과합격자 중 현종 대에 급제한 백홍수(白弘洙)와 고종 대의 백세진(白世鎭) 그리고 이규덕(李圭惠)이 있는데 이들의 문과 급제는 조선말기에 와서 남포현과 남포백씨·경주이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남포현에는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경주김씨 등이 입향하고, 임진왜란 전후인 16세기에 이르면 전주이씨·장수황씨·광주안씨·강릉최씨·무송윤씨 등이 입향하고, 18세기에는 밀양박씨·양주조씨 등이 입향하여 풍천임씨·남포백씨·경주이씨와 함께 조선시대 남포현의 유력 토착 성관으로 기능한다.

전주이씨의 경우는 문과에 급제하고 승지를 역임한 임영대군(臨瀛大君)의 후손인 이덕온(李德溫)이 광해군 때 입향한 이래 그 후손들 중에서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였고, 조선 후기 읍지들 속에 이덕온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유력성관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안씨의 경우에는 기묘사화 때 안자문이 입향한 이래 1명의 사마시 합격자와 1명의 문과 급제자를 내고 있으며, 장수황씨의 경우는 임진왜란 때 황희(黃喜)의 후손인 황즙(黃菴)이 낙향하여 후손들 중 3명의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고, 조선 후기 읍지 속에 효자로 황정직(黃廷直)·황유업(黃有業)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유력성관으로 기능한 예로 볼 수 있다. 강릉최씨는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갔던 최광필(崔光弼)의 후손이 정유재란 이후 입향하여 그의 후손들에서 4명의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조선후기 남포현에서는 강릉최씨와 함께 입향한 무송윤씨를 포함하여 이들을 안·황·윤·최라 부르며, 남포현의 유력성씨로 여겼다. 이들 성관의 입향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척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전주이씨 이덕온과 장수황씨 황즙은 내외 재종숙 사이며, 강릉최씨 최광필은 무송윤씨 입향조 윤순(尹洵)과는 처남매부지간이다.

또한 장수황씨의 외손들인 전의이씨가 2명의 합격자를, 강릉최씨의 외손들인 청해이씨가 2명의 합격자를 내고 있다. 특히 청해이씨는 사마시 외에도 판서 이유민(李裕民)이 숙종 때, 그의 아들 이용(李榕)이 경종 때, 그리고 이용의 손자 이우규(李羽逵)가 영조 때 문과에도 급제하여 중앙관직에 진출하고 있다.

남포지역에서 가장 많은 8명의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한 양주조씨의 경우는 18세기 경에 입향해서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특히 조병덕(趙秉惠)과 그의 장자 조봉희(趙鳳熙), 차자 조인희(趙麟熙), 그리고 조인희의 아들 조중달(趙重達)이 사마시에 급제하고, 조봉희의 아들 조중구(趙重九)가 문과에 급제하여 3대에 걸쳐 연속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조병덕은 과거에 급제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산 홍직필(梅山 洪直弼)의 문하로서 음보(蔭補)를 통하여 지평, 호조참판을 역임한 한말의 거유(巨儒)로, 미산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으며,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인물이다. 조병덕의 아들 조장희(趙章熙)는 사마시에, 조충희(趙忠熙)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들 양주조씨들은 조존성(趙存性)·조창원(趙昌遠)·조계원(趙啓遠) 이래로 중앙정계의 주도세력으로 영향력을 가진 유력성관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낙향하여 이와 같이 사마시 급제자를 대거 배출하다 보니 비교적 늦게 남포현에 입향하였지만 조선후기 이 지역에서 유력성관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남포현에 여말 선초에 정착한 남포백씨·경주이씨, 조선시대에 정착한 전주이씨·양주조씨·강릉최씨·장수황씨 등이 이 지방의 유력 토착성관으로 기능해 왔으나,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크게 현달한 인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선조추송 활동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하여 지방에서 사족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인다. 남포백씨는 신안사에 백이정의 위패를 배향하고, 경주이씨는 이제현을 제향하는 용암영당(龍巖影堂)을 건립함과 동시에 신안사에 이제현을 배향하고, 무송윤씨는 윤자운 사우를 경기도에서 이 건해 오고, 강릉최씨는 최광필 정려를 경기도에서 이 건해 오고, 장수황씨는 황정직과 황유업이 정려를 하사받는 활동 등이 그것이다.

(2) 보령현 지역

고려시대 이후로 보령현을 대표하는 토성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토성(土姓)으로 崔, 망성(亡姓)으로 張·任·李, 촌성(村姓)으로 文·陳·兪·那를 들고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에는 張·崔·李·任·文·陳·那·兪·申·金을 들고 있는데, 이 성씨들의 본관을 알 수 없지만 동국여지승람에 추가로 기록된 申·金은 아마도 평산신씨와 광산김씨일 가능성이 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이씨는 모르겠지만 동국여지승람 이후의 이씨는 한산이씨일 가능성이 크다. 보령지역은 조선후기의 모든 지리지에도 이와 같은 성씨가 그대로 기록된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광산김씨는 조선시대에 15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여 보령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는데, 조선시기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광산김씨는 고려말 보령 청라에 정착한 김성우의 후손들인데, 이 후손들 중 사마시 급제자, 대과 급제자, 그리고 중앙에 입사(入仕)하여 상경종사(上京從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보령지역에서 광산김씨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고, 이 지역 향권을 주도하는 성관으로 기능하였다.

광산김씨의 중심적 인물은 입향조 김성우와, 조선 중종조에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공을 세운 김극성이다. 조선후기에 오면 무장 김성우가 추송되어 청라의 ‘복병이’ ‘의평’, 대천 해수욕장의 ‘갯바위’ ‘군입포’, 남포 ‘옥마산’ 등이 김성우의 왜구 격퇴와 관련된 지명인 것으로 지리지에 기록되어지는 것, 특히 김성우의 후손을 보령의 ‘茲土之主人’으로 표현한 것 등은 광산김씨들의 보령지역 향촌사회 지배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김극성은 보령에 본거지를 두고, 사마시와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관직에 나가 중종반정의 정국공신(靖國公臣)으로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지고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러 조선말기까지 광산김씨 위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이후에 보령현에 입향하는 유력성관들은 직·간접적으로 광산김씨와 인연을 맺으면서 들어오고 또 유력성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광산김씨와 혼맥을 형성하면서 입향한 성관으로는 김성우의 손녀사위 한양조씨 조이로(趙以驪), 감평권의 사위 한산이씨 이치(李釋), 용인이씨 이영순(李永淳), 김극성의 사위 경주이씨 이몽규(李夢奎), 이몽규의 외손인 양주조씨 조존성(趙存性), 김극성의 5대 손녀사위 전주유씨 유병(柳暘) 등이다.

한양조씨는 조이로가 입향하였지만, 본격적 입향은 조이로와 다른 파인 사림과 조광조가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하면서 조광조 친척인 조희웅(趙希雄)이 보령지역에 은거하면서부터이다. 이후 한양조씨는 조선후기 9명의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한산이씨는 이치의

아들 토정 이지함, 손자 이산해 · 이산보, 손녀사위 한음 이덕형(漢陰 李德馨)과 수몽 정엽(守夢 鄭曄) 등이 있으며, 경주이씨 이몽규는 광산김씨에게서 선산까지 받아서 터전을 잡아 양가의 우의가 돈독해졌으며, 양주조씨 조준성의 손녀는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가 되었고, 조준성의 차자 조계원의 후손들은 조선후기 우리나라 명문 벌렬가문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전주유씨 중에는 한말 유준근(柳濬根)이라는 보령지역 최고의 항일운동가를 배출하였다.

보령지역에서 광산김씨와 함께 유력성관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 한산이씨이다. 한산이씨는 목은 이색의 후예인 이치가 김극성의 아버지 김맹권의 사위가 되어 광산김씨와 혼맥을 형성하면서 보령에 터전을 잡고 광산김씨와 함께 이 지역의 유력성관으로 기능해 나갔다.

한산이씨 이치의 후손들은 보령지역에서 가장 많은 35명의 사마시 급제자를 조선시기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토정 이지함, 아계 이산해, 명곡 이산보 등의 유명한 인물을 배출해 냈으므로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유력성관으로 입지를 굳혔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모든 지리지의 인물조 기록에도 한산이씨의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령지역에서의 한산이씨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민중적 사상이 토정 이지함의 토정과, 선조때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봉해지고 영의정에 오른 아계(鵝溪) 이산해의 아계과, 또한 선조 때 이조판서로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명곡(鳴谷) 이산보의 명곡과가 보령지역 한산이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사마시 합격자 35명의 절반 이상은 토정과들이다.

토정과 중 토정의 4대손인 이필천(李必天), 이필천의 동생 이필진(李必晉), 큰아들 이정석(李禎錫), 둘째아들 이정익(李禎翊), 손자 이한(李澣), 조카 이정래(李禎來), 이정래의 아들 이완(李浣)이 연속하여 사마시에 급제하고 있는데, 이중 이정익은 상경종사하여 경주부윤을 지내고, 토정 이지함의 유고집(遺稿集)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정래의 경우는 본인 이정래, 아들 이완(李浣) · 이자(李滋) · 이만(李滿) 이심(李深)의 4부자와 손자 이형등(李馨登), 외손자 한태증(韓泰增)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보령향교의 청금록과 화암서원의 심원록(尋院錄)과 선생안 등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묘소가 현재 거의 보령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보령지역에서 기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경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계과의 경우에는 아계의 아들인 이경전(李慶全)의 다섯째 아들 이무(李袤)가 과거 급제 후 중앙정계에서 남인측과 가까이 활동하다가 경신환국 이후 보령에 정착하였고, 그의 후손 중에서 사마시 · 문과 급제자가 11명이 나왔다.

경주이씨의 경우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몽규가 김극성의 사위가 되어 광산김씨와 연관을 맺으면서 입향하였는데, 그의 외손자인 양주 조씨 조준성과 그 후손들이 번창하였다.

조준성의 큰 아들인 조창원의 딸이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繼妃 莊烈王后)가 되고 조창원은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에 봉해졌고, 조준성의 차자인 조계원은 이항복(李恒福)의 문인으로, 김상헌(金尙憲) 등과 함께 서인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다가 은퇴 후 보령에 낙향하여 살았다. 조계원의 아들들인 조진석(趙晉錫)·조구석(趙龜錫)·조희석(趙禧錫)·조사석(趙師錫)·조가석(趙嘉錫)이 모두 사마시에 급제하고 조진석·조사석·조가석은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 벼슬길에 나갔는데, 특히 조사석은 충청수사와 우의정을 지내고 보령에 낙향하였다. 조사석의 아들 조태구(趙泰耆)와 조희석의 아들 조태채(趙泰采)는 각각 경종 때 소론 4대신과 노론 4대신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중형제간에 서로 생살(生殺)의 대립을 하였다.

조선후기인 17-18세기에 들어오면 평강채씨(平康蔡氏)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선조 이후 보령 청라지역에 입향한 평강채씨는 7명의 사마시 급제자를 배출하고, 중앙에 상경종사(上京從仕)하는 인물이 나타난다. 현감 채시상(蔡時祥)의 자제 3형제인 채명운(蔡明胤)·채팽운(蔡彭胤)·채성운(蔡成胤)이 그들이다. 이들은 사마시를 거쳐 한집안의 형제가 모두 중앙에 진출하였다. 또 채성운의 손자로 백종조(伯從祖)인 채팽운에게서 시를 배운 조선후기의 명신 채제공(蔡濟恭)은 보령 청라의 바로 이웃인 청양 화성사람이다. 영조 때는 채홍리(蔡弘履)가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는데 그는 노론과 연계되어 남인 집권층인 채제공 등의 비판세력으로 존재하였다. 고종 때는 보령출신 평강채씨 채동직(蔡東直)이 문과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보령지역 광산김씨나 한산이씨를 중심으로 하는 보령현 사족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화암서원(花巖書院)이다. 이 화암서원은 광해군 2년인 1610년에 창건되어 숙종 12년인 1686년에 홍주출신 유생인 진사 최문해(崔文海) 등의 청원으로 사액이 된 서원이다.

이 화암서원은 제향 인물들의 성격으로 보아 당파나 학맥의 계승을 위한 서원이라기 보다는 문중서원(門中書院)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문중서원은 조선후기 단일 가문에 의해서만 건립되지 않고 여러 가문들의 협력에 의해 세워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족기반을 갖춘 가문들이 향촌 내에서 그들의 족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서원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보령현 남포현 거주 사마시 합격자 명단은 성씨 인물편 참조)

6. 임진왜란과 보령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은 조선에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다. 왜군은 일사천리로 부산에서 한양을 거쳐 북상하였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은 한양 길목인 충추·청주 지방이 중점적으로 병화를 입었다. 따라서 보령과 인근 고을은 큰 화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의 영향은 보령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로 인하여 조선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고, 왜군의 수륙병진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보령 앞바다는 전장이 되지 않았다. 한산도 해전 이후 수군의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삼도수군통제사를 두었다. 그리고 삼도수군통제사는 본영을 한산도에 두고 경상·전라·충청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도록 하였다. 삼도수군통제사에는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겸직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충청수군도 삼도수군통제사의 지휘 하에 들어가 남해 바다로 가서 통제사 이순신과 합세하여 왜군과 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청수군은 충청수사의 지휘 아래 본영·서천포·마량진·당진포·소근포·과지포의 수군이 차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상·전라의 수군이 자신들의 근무지에서 통제영의 지휘를 받는 대신 충청수군은 먼 거리 원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따랐다.

1597(선조 30)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삼도수군통제사이던 이순신은 모함으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가고, 새로이 조선수군을 지휘하게 된 사람은 이순신과 라이벌 관계인 원균으로,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1년 전인 1596(선조 29)년에 충청수사에 임명된 최호(崔湖)도 충청수영군을 이끌고 원균 통제사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왜군을 육군이 먼저 공격한 후 수군이 공격하겠다는 원균과, 수군이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권율의 의견이 맞서다가, 원균은 전 병력을 동원하여 7월 7일 다대포에서 왜군의 빈 전선 8척을 불사르고, 서생포에 이르렀으나 적의 함대를 만나 패전하고, 마침 풍랑으로 인하여 일부는 표류되었다. 간신히 가덕도에 도착한 원균의 주력은 다시 일본의 복병을 만나 많은 손해를 보고, 거제도 앞 칠천량에 정박하였다.

마침내 7월 15일 새벽 왜군 함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왜군은 미리 면밀한 계획을 세워 도오도오(藤堂高虎)와 와끼사까(脇坂安治)는 수백 척을 이끌고 부산에서 출진을 하고, 고니시(小西行長)·시마즈(島津忠豊) 등의 육군도 이곳으로 향하였으며, 가토오(加藤嘉明)의 수군도 이에 합세하여 공격하니, 7월 16일 조선수군은 육지와 바다 양면에서 공격을 받아 대패하고, 통제사 원균은 육지로 탈출하였다가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라우수사 이익기(李億祺), 충청수사 최호, 조방장(助防將) 배흥립(裴興立) 등 역전의

용사들이 전사하고, 경상우수사 배설(裴楔)만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한산도로 후퇴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칠천량 해전에서의 최후를 “이억기와 최호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고, 원균은 해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배설은 도망하여 한산도에 이르렀는데, 조정에서 명하여 주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칠천량 해전은 조선 측에는 현장 최고 지휘관인 수사 3인이 전사하는 치욕의 완패였다. 그것이 원균의 책임이든 권율의 책임이든 충청수군과 충청수사 최호는 함께 나라를 지키는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다가 남해 바다에서 전사한 것이다. 패전한 해전이어서 역사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 해전에서 목숨을 바친 충청수영의 역전의 용사들에 대한 애국심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원균은 육지에 내렸다가 도망가지 못하고 쫓아온 왜군의 칼에 맞아 58세의 나이로 전사했지만, 최호와 이억기는 바다로 뛰어내려 전사했다. 평생 무장으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왜군의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내려 부하들과 함께 깨끗이 절의를 지키고 죽는 편이 무장으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때 최호는 62세의 노장이고, 이억기는 37세의 장년이였다.

보령에서 임진왜란의 전투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남해에서의 전투로 충청수군도 상당수가 전사하였을 것이니 그 가족들의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칠천량 해전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칠천량 해전 후 충청수영 내의 임진왜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선조 33년(1600)년 1월 29일조에

동궁(東宮)께서 갑오년(1594)에 남방에 계실 적에 연해를 순심(巡審)하시다가 충청 수영(忠淸水營)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날 한밤중에 온 성에 통곡 소리가 진동하였으므로 사연을 물어보니, 한산도에서 소식이 왔는데 죽은 사람이 83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가 모두 통곡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장에 가족을 보낸 심정은 마찬가지였고, 전장은 먼 남방이지만 먼 곳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유재란 때인 1597년에는 명나라 수군이 조선을 돕기 위해 왔는데, 계금(季金) 장군이 절강의 수병 3,000명을 이끌고 오천의 수영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남해바다로 가기도 하였다. 현재 오천에는 季金將軍淸德碑가 있어 임진왜란 당시 명 수군이 조선에 들어온 사실을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1598년에는 명 수군도독 진린(陣麟)이 절강병선 500척을 이끌고 충청수영 관내인 당진에 상륙하였다가 남해로 가서 왜군과 싸웠다. 이로 보면 임진왜란 때 충청수영은 남해 삼도수군통제영의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충청수영을 중심으로 한 수군이 전투에 참여함과 동시에 충청병영을 중심으로 한 육군도 다른 지역에 동원되어 전투에 참여하면서 보령지역의 육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1593년 충청병사 황진은 충청도 각 현감 등 휘하 병력을 지휘하여 경상도 진주성에서 목사 김시민 등과 함께 왜군과 전투를 벌였다. 여기서 황진은 패전하면서 전사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진주성 전투이다. 이 전투에 충청병사 황진을 비롯하여 남포 현감 이예수(李禮壽), 보령 현감 이의정(李義精) 등이 참여하였다가 전사한 후, 보령(保寧)에 사는 정로위(定虜衛) 인발(印潑)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선조 26년 7월 26일자에 기록되었다. 이 전투에서도 보령지역의 많은 병사들이 진주성에서 전사했음을 짐작케 한다.

7. 성리학의 학맥

조선의 성리학은 주리론과 주기론의 두 계통으로 발달하였다. 주리론은 이언적에서 시작되어 이황에 이르러 대성하였는데, 이 학설을 따르는 학자들이 영남학파를 형성하였다. 한편 주기론은 서경덕이 처음으로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고, 이기일원론을 주장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이이에 의해서 대성을 보았고, 이 학설을 따르는 학자들에 의하여 기호학파가 형성되었다.

보령지방은 기호학파가 활동하는 지역에 포함된다. 15세기 말 사림이 중앙정계에서 활약하지만 보령지방의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거나 지방에서 활동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16세기에 들어와 보령지방의 사림으로 활동하고 뒷날 한국 유학사에 기록되는 인물이 이지함(李之菡)이다.

이지함(1517~1578)의 본관은 한산, 호는 토정이다. 이지함은 명문가인 한산이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선계(先系)가 고려후기 성리학 수용기의 초기 인물이었던 이곡·이색이었으므로 이들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이지함은 서경덕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의약·복서·천문·지리·율려(律呂)·산수·음양·술서 등 제가 잡술에 모두 통달했으며, 기지(奇智)·예언·술수에 관한 많은 일화를 남긴 이인(異人)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젊어서 서경덕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송도로 가서 그에게 배웠는데, 여관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자 이치로써 타이르고, 나무라며 잘못을 깨우치게 하였더니 이를 본 서경덕이 더 가르칠 것이 없다고 돌아가게 하였다.

그는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산천을 유람하거나 제자를 가르치며 보냈다. 그가

벼슬에 뜻을 두지 않은 것은 친구 안명세의 억울한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만년에 포천현감에 나가 생재(生財)를 하여 백성을 구하는 방도를 상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돌아갔다. 또 아산 현감이 되어서는 군액을 감해 줄 것 등 민생을 구할 계책 등을 청하였다. 여기서 성리학의 민본 이념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 했던 도학자적인 이지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지함은 제가(諸家)를 두루 섭렵하였으며, 천문지리로부터 신방비결(神方秘訣)에 이르기까지 달통하지 않음이 없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저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그의 학문과 사상의 깊이와 성격을 논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는 당대에 박순·고경명·이이·성혼·윤근수·정철·조식 등과 교류하였으며, 문화에 이산보·조현·서치무·박춘무·서기 등이 있다. 나중에 보령의 화암서원, 아산의 인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이지함이 초기 호서 사립으로 활동했지만 그의 학맥은 기호학파의 정통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이에 적통을 둔 기호학파는 호서 연산의 김장생에게 중심이 옮겨갔다. 당시 호서사립을 대표하는 김장생과 김집 부자는 호서·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을 배출했지만 보령지역은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은 없고, 명곡 이산보의 손자 李峻成만 보이고 있을 뿐이어서, 공주목 지역이 호서사립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홍주목 지역은 그들에게 호응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산보가와 송시열가가 혼맥을 형성하는 등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보령의 사립은 연산의 호서 사립과 지속적 관계를 가진다.

호서 기호학파의 적통이 김장생→송시열→권상하로 이어졌고, 이어서 한원진으로 이어지면서 홍주목 지역의 사립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율곡의 학맥을 계승한 기호학파는 권상하의 문인 중에 한원진과 이간이 나타나 호락논쟁이 벌어진다. 즉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人物性異論)는 것을 주장한 한원진의 학설을 따르는 충청도 지역의 호론(湖論)과,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人物性同論)는 것을 주장한 이간(李柬)의 학설을 따르는 서울·경기 지역의 낙론(洛論) 사이의 논쟁이다. 뒤에 호론은 위정척사사상으로 연결되고, 낙론은 북학사상으로 연결되었다.

홍주에서 한원진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의 인물성이론 즉 호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당학파(南塘學派)라고 하였다.

보령지역에서 한원진을 사숙하여 그 학통을 이은 사람은 정혁신(鄭赫臣, 1719~1793)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성당(性堂)이다. 정혁신은 보령의 道朗里(현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출생하였는데, 그의 증조 만(鏞)은 우암의 문인으로 스승을 위하여 변무소(辨誣疏)를 올린 유생이었다. 그의 조부 世東과 부친 彦柱를 통해 가학을 전수한 그는

과거제도의 폐단을 직시하고 과거응시를 거부하였으며, 1764년 가족을 이끌고 오서산(현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속으로 들어가 양성당(養性堂)이라는 서재를 짓고 평생을 ‘자정(自精)’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조정에서 1780년(정조 4) 학행이 뛰어나다 하여 광릉참봉을 제수하고 1790년 원자탄생을 기념하여 통정대부침지중추부사를 특제하였으나 일체 관직에 부임하지 않았다.

정혁신은 「남당기문록(南塘記聞錄)」을 항상 옆에 두고 한원진의 심성론을 존신하여 이를 후학에 전수하였다. 그는 “심은 기요, 기는 음양이다. 음양이 이미 나누어진 즉 능히 청탁이 가지런하지 않음이 없을 수 없으니 선악이 분명하다. 심(心)이 발하지 아니하니 또한 순선(純善)하고 악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라는 심리설(心理說)을 주장했다.

그의 문인으로는 이건운(李健運), 이예환(李禮煥), 이문복(李文福), 박도환(朴道煥), 이시덕(李時德), 이상문(李相文), 백사형(白師亨) 등이 알려졌다.

정혁신의 문인으로 이건운(李健運 1751~1822)은 홍주지방에 살았는데, 함평이씨의 인물이며 묘소가 보령 성주에 있다. 그의 생애와 학문에 대하여는 아직 자료 부족으로 알 수는 없다. 그가 작성한 정혁신의 제문에 김장생·송시열의 정학이 한원진에게 이어졌으며, 스승인 정혁신은 한원진의 학문인 ‘당론(塘論)’을 배워 이를 학문과 처신의 기본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건운 역시 한원진의 학문을 ‘당론’이라 하며 스승이 존신하고 자신도 이어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건운이 바로 한말 홍주 의병장이며 남당 학파의 종장인 김복한과 이설의 스승이었던 이돈필의 증조부가 된다. 또한 이건운은 1807년 남포에 신안사가 중건될 당시 원로 영건유사로 참여하여 송시열·권상하·한원진을 배향하게 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정혁신의 문인 중에서 호론을 남포현에 전수한 사람은 이예환(李禮煥 1772~1837)이다. 본관은 경주, 호는 난국재(蘭菊齋)이다. 이제현의 후손으로 남포현 고읍면 수안리(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 출신으로 정혁신이 한원진을 사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오서산 속으로 찾아가 수학하였다.

이예환은 스승이 죽은 후 동문 선배인 이문복·이시덕과, 친구인 이상문이 정리한 『성당집(性堂集)』을 교정하고 발문을 지어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그 역시 “도의 근원까지 친히 그 경력을 밝은 분은 우리 동방에서 율곡·우암·남당 세 선생뿐이시다” 또는 “율곡·우암 양 선생은 동방 수천 년 이래 비로소 밝히셨으며 그 뒤에 이를 보아 터득한 이는 오직 남당 선생이시니 의연히 높게 드러남이 더불어 짝할 이가 없다”라고 한원진의 학문을 평하였다.

이예환의 문인으로는 보령 주산 출신의 이정영(李鼎榮, 본 경주, 호 尤可軒), 이학영

(李學榮, 본 경주, 호 善濂齋)이 있다. 이들은 보령 주산면에 세거한 이제현의 후손 경주이씨로, 이정영은 고종조 동몽교관을, 이학영은 고종 22년(1885) 사헌부 감역이 증직되었다.

보령의 백사형(白師亨) 역시 정혁신의 문인이었으니 그의 학문적 영향으로 백낙관과 같은 철저한 척사파(斥邪派)가 나타나게 되었다.

백사형(白師亨 1768~1808)은 본관이 남포, 호가 청계(淸溪)이다. 영조 44년 보령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정혁신의 학식이 높음을 듣고 찾아가 수학하였다. 그는 학문의 요체를 전습받고는 녹문 임성주(鹿門 任聖周)를 비롯하여 삼산재 김이안(三山齋 金履安)·송환기·송치규 등과 종유하였다. 그의 학문에 대하여 동문 이예환은“지금의 학자는 한쪽은 향인의 길에 서 있고 한쪽은 성인의 길에 서 있는데, 성인의 길에서 능히 양쪽에 서 있는 자는 오직 공뿐이다”라고 하여 그의 덕이 서민에게까지 이름이 칭송되었다.

보령 남포지역에서 남당학과 성리학맥을 자명하게 보여 주는 것은 신안사에 배향된 인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사우에는 주자, 백이정 이제현, 송시열, 권상하, 한원진을 제향했다. 또한 『신안사영건기』나 『이재실기』에 등장하는 기호학과 남당학맥과 그 관련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신안사 중건시(1807) 유사 중에서 이진운(1751~1822)은 앞에서 말한 대로 오서산의 정혁신을 찾아가 수학한 남당학맥의 인물이며, 1801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동생인 이복운과 함께 활동하였다. 신안사 영건시 그는 58세의 나이로 아마도 지역 유림의 원로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들 이유락(李儒洛)은 홍주향교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손자 이달서는 성균관 진사로 유교적 소양이 있었으며, 증손자 이돈필은 덕산에서 강학하였는데, 이돈필의 제자 김복한은 한말 호서지역의 남당학과 종장이 되어 이 고장 유림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백사형은(1768~1808)은 정혁신의 제자이면서 백이정의 후손이어서 신안사 창건과 중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김준근(1803~1854)은 본관이 안동으로 선원 김상용의 후예이다. 1846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보령 미산지역에서 강학하였으며, 그의 제자 이정문과 함께 한원진의 성리설에 연원을 두는 학자였다.

송환기(宋煥箕 1728~1807)는 대전 회덕 출신으로 호가 성담, 본관은 은진으로 신안사 영정봉안 때 축문을 지었다. 그는 송시열로부터 내려오는 한원진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송치규(宋稹圭, 1759~1839)는 송환기의 제자이며, 호는 강재(剛齋)이다. 송시열의 학통을 이어서 한말 연재 송병선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신안사에 익재(益齋)와 수암(遂庵)을 추배할 때 축사를 지었다.

이렇게 신안사는 명실상부한 노론 기호학과 중에서 남당학맥을 이어가는 상징이었다.

8. 조선후기의 경제

1) 보령지역의 보부상단

조선후기 전국 천여 개의 지방 장시 즉, 5일장의 발달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 장시에서 상권을 주도하였던 상인이 보부상이다. 보부상은 보상(褌商)과 부상(負商)의 두 종류의 상인을 통칭하는 말로, 보상은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거나 질빵에 짊어지고 다니며 시장에 앉아서 보자기 위에 상품을 벌여 놓고 판매하기도 하고, 촌가로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그 집의 마루나 방에 내려놓고 앉아서 파는 상인으로 ‘붓짐장수’라고도 하였다. 부상은 상품을 지게에 지고 다니다가 시장이나 촌가 마당에 상품을 내려놓고 서서 판매하는 상인으로 일명의 ‘등짐장수’라고도 했다.

보부상의 기원은 삼국시대 말기부터이지만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전국적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특정상품의 독점판매권을 받고 국가의 비호를 받는 대신 국가에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많은 봉사를 하여왔다. 개항기 이후에 와서는 국가적 내외외환 속에서 충의·협동·규율의 윤리규범에 의해 강한 조직력을 갖춘 보부상단을 국가가 정치·군사적 의도로 이용하기 위해 더욱 전국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1899년 보부상단을 ‘商務社’란 이름으로 조직하였으며, 보상단을 ‘상무사우사’, 부상단을 ‘상무사좌사’로 분리 조직하였다.

원래 보부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강하게 하기 위해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어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켜 활동하였다. 조선후기 보령지역을 관할하던 보부상단은 2개였다. 1851년 예산 대흥 사람인 임인손(林仁孫)이 국가로부터 공문을 받아 홍주·결성·보령·청양·대흥의 5읍 상계(商稷)를 조직하고, 시장에 임방(任房)을 설치하여 보령현 지역의 시장관리와 상품유통의 독점적 관리를 시작한 것이 보부상단 조직의 시초이다. 그후 이 보부상단의 명칭이 〈원홍주등6군상무사우사〉로 되어 일제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이 보부상단은 의미와 기능은 퇴색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마지막 보부상단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한편 남포현 지방에는 모시 유통권을 바탕으로 성립된 저산팔읍상무사 조직이 시장을 관할하였다. 저산팔읍상무사는 모시 유통에 의해 시장이 발달한 지역인 부여, 홍산, 비인, 한산, 서천, 남포 지역의 보부상들이 보부상단을 조직하고 1845년 6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이들은 해방 후까지 사단법인 상무사를 조직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재는 조직이 소멸되었다.

2) 시장발달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지방장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부·목·군·현의 청사가 입지하고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지방장시가 생겨났고, 그 밖에도 해로와 하천수운과 도로의 접점 등 교통수단의 결절점, 물산의 산지에 장시가 입지했다. 이러한 장시는 다수의 인구, 다량의 물자공급, 교통의 요충이라는 세 가지 입지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보령지역은 대부분 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또한 많은 섬들이 있다. 따라서 어장이 많고 수산물이 풍부하다. 바다의 반대쪽은 산악으로 둘러싸여 보령의 지형은 서쪽으로 경사져 있고, 이웃 청양과 경계를 이루는 산맥까지는 불과 30리 정도밖에 안 된다. 보령지역은 남북으로 가늘고 긴 지형으로 웅천천 대천천 등의 하천이 천수만 쪽으로 유입되며, 그 유역은 비록 넓지는 않지만 수리관개에 편리하다. 따라서 그다지 가뭄의 피해가 없고 토지는 대체로 비옥해서 농경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령지역은 예로부터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천혜의 고장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선후기 지방장시 발달 추세 속에서 보령지역에서도 지방장시가 생겨나고 보부상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세기 초 우리나라 전국 시장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임원경제지>에는 다음과 같이 보령지방의 장시가 기록되었다.

지역	장시명	장시의 위치	개시일	주요 거래 출시품
				주요 산출품
보령현	읍내장 대천장 옹암장 수영장	읍남 20리 목충면 읍북 20리 청소면 읍서 20리 김신면	1.6	魚, 鹽, 生鰓
			3.8	藏石, 石炭, 黏白玉, 紫草, 天門冬, 安息香,
			2.7	鹽, 秀魚, 鱗魚, 民魚, 鯊魚, 魮魚, 眞魚, 石
			2.7	首魚, 靑魚, 錢魚, 麻魚, 銀口魚, 烏賊魚, 絡
				締魚, 鰓, 蛤, 江瑤珠, 石花, 海衣
남포현	대천장 간치장	읍남 20리 웅천면 읍남 40리 습의면	4.9	硯石, 靑魚, 銀口魚, 秀尾魚, 海衣, 石魚, 石
			1.6	花, 鯊魚,, 鹽, 苧布, 牛犢,
				鐵, 花草, 硯石, 烏石, 松篔, 蓴竹, 天門冬,
				秀魚, 鱗魚, 民魚, 鯊魚, 魮魚, 石首魚, 靑
				魚, 錢魚, 麻魚, 銀口魚, 烏賊魚, 鰓, 蛤, 紅
				蛤, 江瑤珠, 白花蛇, 魚鱗, 海衣, 甕器

대부분의 군현에는 읍저(邑底)에 장시가 위치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읍저에서 10-20리 이내에 개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남포현의 경우는 남포읍내장이 없고 간치장은 읍에서 40리 떨어진 곳이다. 이는 남포현의 치소가 세종 때까지 웅천 수부리 수안마을에 있다가

현재의 남포에 옮겨진 후 행정기능만 옮겨지고, 주민 생활의 오랜 터전인 고남포의 웅천천 하구지역에 시장의 기능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남포현은 읍내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 남쪽 고남포 지역에 대천장이 개설되고, 그 남쪽에 간치장이 개설되어 모시 유통권에 포함되었다. 남포 읍내는 시장 기능은 없고 저잣거리만 형성되었다.

보령지방의 주된 상품은 해산물, 남포오석, 남포의 저포였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히 교역된 상품은 저포였다. 남포현은 저포의 주생산지인 한산·서천과 이웃하여 이른바 저산8읍에 속하였다. 저산8읍은 보부상단이 조직되어 저포 수집의 한 경로를 이루는 지역이다. 저산8읍의 개시일에서 남포는 한산(1일장), 서천(2일장), 비인(3일장), 남포 대천(4일장)의 순서로 순회하였으며, 보령의 경우에는 홍주(1일장), 결성(2일장), 대천(3일장), 광천(4일장)순으로 순회하였다.

한편 1900년대의 보령지역 시장상황은 다음과 같다.

관할 상무사	장시명	개시일	시장상황
저산8읍상무사	남포군	대천장	4, 9
		간치장	1, 6
홍주상무사	보령군	읍내장	1, 6
		수영장	2, 7
		주교장	5, 10
		대천장	3, 8

3) 조선후기의 농업

조선후기의 경제발달은 농업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은 활발한 농지개간의 전개와 새로운 농법의 보급에 따라 생산력의 급증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참고로 조선후기 보령지역의 농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영조조의 여지도서)

	보령현	남포현
旱田	원장부 2,297결 54부 2속 내 陳雜頃 1,387결 13부 2속 時起 910결 41부 2속	원장부 1,540결 60부 9속 내 陳雜頃 539결 96부 時起 1,000결 62부 3속
水田	원장부 1432결 13부 5속 내 陳雜頃 459결 21부 時起 972결 92부 5속	원장부 1,190결 72부 7속 내 陳雜頃 37결 79부 6속 時起 1,161결 93부 1속

조선후기의 농법은 지금까지의 직파법과 농종법이 각각 이앙법과 견종법으로 바뀌었다. 특히 논농사(水田)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이앙법이 보급됨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벼농사에 있어서 이앙법의 보급은 수리시설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리하여 18세기 말 우리나라 전국 저수지가 6,000여 개에 달하였는데, 보령지역에서도 저수지가 축조되어 이앙법에 의해 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조 대 보령지방의 저수지(堤堰) 상황은 다음과 같다

보령현의 제언(堤堰)

자료 : 여지도서

堤 堰 名	所 在 地	規 模
加 五 介 蛇 內 池 內 水 門 阿 卞 谷 於 牆 機 內 懸 阿 介 洞	縣北 7里 縣西 15里 在城底 縣西 10里 縣西 5里 縣北 20里 縣南 15里 縣南 24里 縣南 25里	周圍 706척, 水深 4척 周圍 726척, 水深 5척 周圍 858척, 水深 4척 周圍 565척, 水深 5척 周圍 2,278척, 水深 4척 周圍 741척, 水深 5척 周圍 828척, 水深 3척 周圍 1,204척, 水深 5척 周圍 620척, 水深 5척

남포현의 제언(堤堰)

자료 : 여지도서

堤 堰 名	所 在 地	規 模
瓮 洞 三 巨 里 東 谷 山 之 古 介 兔 峴 於 義 谷 甌 山	北 面 瓮洞里 新安面 三巨里 佛恩面 東谷里 習衣面 回龍里 習衣面 野館里 習衣面 龜山里 習義面 內甌里	周圍 648척, 水深 3척 周圍 358척, 水深 3척 周圍 4000척, 水深 3척 周圍 340척, 水深 3척 周圍 420척, 水深 3척 周圍 460척, 水深 3척 周圍 401척, 水深 3척

4) 토산품

여지도서에 기록된 보령지방의 조선후기 토산품은 다음과 같다.

- 保寧縣 : 지치(紫草) 모래무지(鯨魚) 굴(石花) 조기(石首魚) 민어(民魚) 낙지(絡締) 오징어(烏賊魚) 홍어(洪魚) 청어(靑魚) 도루묵(銀口魚) 전어(箭魚) 송어(秀魚) 준치(眞魚) 살조개(江瑤珠) 농어(鱸魚) 전복(鰓) 조개(蛤) 참가사리(細毛)

김(海苔) 소금(鹽) 전죽(箭竹)

- 藍浦縣 : 도루묵(銀口魚) 홍합(紅蛤) 청어(靑魚) 모래무지(鰲魚), 송어(秀魚) 홍어(洪魚) 조기(石首魚) 전복(鰓) 부레푀(魚鰓) 김(海苔) 오징어(烏賊魚) 전어(箭魚) 삼진(麻魚) 민어(民魚) 농어(鱮魚) 조개(蛤) 살조개(江瑤珠) 참가사리(細毛) 대살(竹箭) 대나무(竹) 사기(沙器) 백화사(白花蛇)

조선시대 보령지방의 특산물은 해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남포현의 성주산을 중심으로 연석(硯石)과 비석의 재료인 오석(烏石)이 산출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토산품이 되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영조 7년(1731)에는 “각 능의 표석(表石)은 모두 강도(江都)의 돌을 쓰는데, 지금 강도의 돌이 다 되었고 남포의 돌 품질이 좋으니 척수가 맞는 것으로 대신 써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여 남포 오석이 왕실릉 치석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남포현 내의 웅천 평리에는 나라에서 돌을 캐 흔적을 보여 주는 ‘나랏독구테기’라는 지명이 현재까지 전해 온다.

이렇게 왕실에서 남포오석이 주목됨과 동시에 권력자들도 남포오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그 폐단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1년(1725) 최도문이 상소하기를 “남포현 성주산은 본래 돌의 산지인데, 품질은 매끄럽고 세밀하여 제일이라 칭찬한다. 그리하여 도내 각 영문(營門)의 고관과 경중(京中)의 세력 있는 사대부가에 이르기까지 묘도의 비갈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비용이나 운반하는 군사를 남포현감에게 청하니 그 산 아래 사는 천여 호의 역부들이 유산(流散)하여 역부(役夫)를 세우지 못하니 인근 45읍 고을과 승도(僧徒)들까지 폐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남포현 및 부근이 버려질 지경이니 폐단을 마땅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하여서 백성의 폐해를 제거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현재도 남포오석의 명성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묘비석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남포벼루도 조선 후기부터 뛰어난 돌의 재질과 문양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벼루로 알려져서 중국의 흡주연(歙州硯)이나 단계연(端溪硯)을 능가한다는 평을 들었다.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래한 조엄이 기록한 『해사일기(海槎日記)』에는 청나라에 간 어느 사신이 중국에서 극품의 벼루를 비싼 값에 구한 다음 돌아와서 살펴보니 남포벼루였다는 말을 듣고 천하의 벼루라도 남포석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고 하고 있다. 남포벼루의 품질은 조선후기 모든 실학자들이 최고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 벼루의 대부분이 남포산이었다.

9. 보령 연해안의 이양선 출몰

세도정치 시기인 19세기에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룩한 열강들이 상품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함을 앞세워 아시아 여러 나라에 경쟁적으로 침입해 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양 선박(이양선)은 이미 18세기부터 우리나라 연해안에 나타나 처음에는 탐험과 측량을 목적으로 하였다가 19세기에는 통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서해안을 따라 서울에 이르는 해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보령의 근해에서 이와 같은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였다.

순조 16년(1816) 영국 군함 알케스트 호(선장 맥스웰 대령)와 라이라 호(선장 바실홀 대령) 2척이 청나라에 왔다가 조선해안 측량을 위해 대청열도(大靑列島)에 도착한 후 남하하여 격렬비열도를 거쳐 외연열도에 나타났고, 본토 접근을 위해 비인만에 입항하여 갈곶에 정박하였다. 이에 충청수사 이재홍(李載弘)은 마량첨사 조대복(趙大福)으로 하여금 문정(問情)하게 하였다. 이때 이들 배에서는 문정관이 방문하였을 때 서적, 지구의, 거울 등을 주었다. 그런데 그 서적 중에 성경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로 알려져 오늘날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고, 서천군 서면 마량진에는 최초의 성경전래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이들 영국 군함 2척은 육지 접근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성경을 비롯한 여러 물건들을 조선 측에 건네 주고 고군산열도를 거쳐 떠나갔다.

순조 32년(1832)에는 영국 상선 로드 암허스트호(선장 리스, 승무원 67명)가 고대도에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 배는 중국 화남지방의 항구를 떠나 이해 6월 11일(음)에 황해도 창선도(昌善島)에 들러 현지 관리와 필담으로 교환하고, 수일 후에는 충청도 보령 앞바다의 무인도에 표착하려는 것을 해안 관리들이 고대도(古代島) 안항(安港)에 정박케 하였다. 안항이 어디인지는 오늘날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공충관찰사 홍희근(洪羲瑾)은 홍주목사 이민희, 수군우후 김형수(金瑩綬) 등으로 문정하게 하였는데, 암허스트호에는 대포가 8문, 총 35정을 비롯하여 칼 창 등 많은 무기를 싣고 있다는 것과 선원들의 국적이 영국이고, 영국은 육로로 4천리 해로로 7천리 떨어졌다는 것과 영국은 청과 교역을 하고 있으나 진공(進貢)하지 아니하고, 영국 사절은 청 황제에게 고개숙여 예를 행하지 않음을 알아내었다. 이와 같이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배에는 통역 겸 의사로 따라온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의 독일인 목사 귀츨라프가 한문으로 필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암허스트호는 20여 일을 정박하고 국왕에게 바치는 글과 유리그릇·천리경(망원경)·양포(서양 옷감)등 진기한 물품들을 예물로 바치면서 서울의 국왕에게 전달되기를 요구하였고, 해난 구조 조약의 체결에 응해 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조선 측은 외국의 급서(給書)와 예물을 받는 것은 국법에 전례가 없으므로 위에 보고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 수령을 완강히 거부하는 동시에 이 영국배를 표류선으로 처리하여 육류 소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이들을 환대함에 그쳤다. 영국배는 마침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달 7월 20일에 상소문과 예물을 남겨둔 채 이곳을 떠나 제주를 거쳐 류우큐 방면으로 향하였다.

이 배에 탔던 선교사 귀츨라프는 이미 마카오에서 전도용 한역성서를 가지고 와서 내방자와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포교의 단서를 열고자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귀츨라프 일행은 정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해안에 내려 주민들에게 포교함과 동시에,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만드는 법, 자신들이 가지고 온 감자씨를 주민들에게 나눠 주면서 파종법과 재배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귀츨라프의 고대도 감자전과가 충청도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 감자 전파의 효시이고, 후대에 충청도를 중심으로 감자가 조선 사람들의 소중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1763년 조선통신사 조엄(趙儼)이 대마도에서 감자씨를 얻어 부산진으로 보낸 것이 감자 전래의 효시로 본다.

한편 1846년(헌종 12)에는 프랑스 군함이 외연도에 나타났다. 이 배에는 한국인 신학생 최양업(崔良業)이 타고 있었다. 최양업은 청양 화성 출신으로 김대건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로 천주교 신부가 된 사람이다. 프랑스 군함의 외연도 출현은 1839년 기해박해 때 프랑스 신부 모방 샤프탕 앙베르가 살해된 데 대한 문책을 구실삼아 무력시위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동양함대 사령관 세실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외연열도에 나타났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어서 관료를 접촉하기 어려웠다. 이에 세실은 섬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기해박해 때 프랑스인 신부 3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강경한 문책 서한을 전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답을 촉구하기 위해 명년에 다시 올 것을 통고하고 퇴거하였다.

그 후 1856년(철종 7) 프랑스 군함 한 척이 장고도 앞에 나타나서 군인 수백 명이 무기를 들고 상륙하여 소·돼지·닭·채소 등을 빼앗고 그 값으로 청나라 은전(銀錢) 122원을 주고 떠났다. 이러한 이양선은 또한 웅천 독산 앞바다에도 나타나 충청수영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계속되던 이양선 출몰과 서양의 통상요구에 대하여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수교통상 거부 정책을 강화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척화비를 세워 그들을 배척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다.